

2025학년도 1학기

# 우수강의 에세이 모음집

교육혁신원 교수학습개발센터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 CONTENTS

《  대상》 좋은 연구자가 되는 길 .....	1p
《  최우수상》 앓을 넘어 삶으로 인간과 행동과학 강의를 통해 .....	5p
《  최우수상》 너가 쓰는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고 싶다면 .....	9p
《  우수상》 경계 너머, 감성과 기술이 만날 때 .....	13p
《  우수상》 무역은 '두원테크트리'와 함께 .....	15p
《  우수상》 배우고, 울고, 성장하다 '시스템분석 및 설계'수업이 내게 남긴 것들 .....	19p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데, 그 방법을 모를 때 .....	23p
불안에서 자신감으로, 전자회로가 바꿔준 학습 태도 .....	25p
준비된 도전, 그 출발선에 서게 한 수업 .....	29p
배움의 해상도를 높여준 일상 속 생약 .....	33p
교육의 언어로 삶을 배우다 .....	35p
논어 다시 읽기를 추천합니다 .....	37p
마음에 다가갈 첫걸음, 심리검사 강의를 듣고 .....	41p
학부생이 개발하는 신약 .....	43p
강의 그 이상의 가치 .....	45p
Bonjour, la ami! .....	47p
전공을 직접 요리하다 .....	51p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의 힘' .....	53p
Classic is not boring .....	55p
그래서 우리의 처방약은 .....	57p
실습으로 살아난 이론, 자연스러운 몰입의 현장으로 .....	59p
매순간 진심을 다하는 호텔리어의 생동감 넘치는 강의 .....	63p
영화를 통해 배우는 생활, 법률, 진짜 삶에 스며든 수업 .....	66p
단순한 전공필수 과목 그 이상, 경영정보론과 나의 변화 .....	67p





대상

## 좋은 연구자가 되는 길

학과 **상담심리학과**

이름 **윤진희**

과목 **연구방법론**

**정구철** 교수

내가 우수 강의로 추천하려는 수업은 바로 상담심리학과 4학년 전공으로 수강할 수 있는 정구철 교수님의 연구방법론이다.

우선, 연구방법론에서 무엇을 하는지부터 소개해 보려 한다. 연구방법론의 강의 목표는 바로 ‘사회과학 연구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인데, 실제로 수강하면, 그 목표가 왜 설정되어 있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이론수업과 PBL 활동을 병행하는 수업으로, 팀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고, 직접 논문을 읽고, 주제에 적합한 설문지를 선정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배포한 설문지를 SPSS라는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석한 후 초록과 포스터를 제작한다. 최종적으로는 학기가 끝난 이후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논문을 발표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팀원들과 논의한다는 지점에서 팀 프로젝트가 이뤄짐을 알 수 있을 텐데, 각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 진행한다. 물론, 역할을 정해놓는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면 임시로 정해놓은 역할 외에도 추가로 다른 역할도 같이 진행할 수 있다. 나의 경우, 심리학의 한 분과인 계량심리학에 관심이 많아 통계를 열심히 배우는 중이다. 그래서 설문지 배포 결과를 분석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싶다고 적극 나섰고, 실제로 가장 열심히 한 일 중 하나이다. 그러나, 주제가 선정된 이후, 주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조원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해 주었고, 설문지 정리하는 작업에도 당연히 참여했으며, 구글 폼을 활용하여 배포할 설문지를 만들 때 또한 여타 다른 조원들처럼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초록에 필요한 연구 결과들을 해석하는 작업도 실시하고, 필요한 표를 제작하기도 하였는데, 이외에도 논의 중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조원들의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일을 하였다. 즉, 연구방법론이란 전공 하나를 수강하여 적절한 설문조사 제작 방법, 개인의 통계적 역량 및 연구 결과 해석 역량, 정돈된 글 정리 실력 외에도 의사소통 역량과 조금은 느린 조원들을 챙기는 배려심을 배울 수 있었다.

위의 내용을 통해 왜 내가 연구방법론 수업을 추천하는지 짐작이 갈 것이라 믿는다. 그렇지만 전공의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조금은 찝찝할 것 같아 생략해도 될 부분이겠지만 짚고 넘어가려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팀 프로젝트를 하는 수업이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3차시 수업 중 절반은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남은 절반은 PBL 활동을 진행한다. 그러나 필요시에는 이론 수업을 e-class를 활용한 온라인수업을 진행하고 3차시 전부 PBL 활동을 하기도 한다.

팀 프로젝트 수업, 흔히 ‘팀플’이라 부르는 수업의 명확한 단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열심히 그리고 잘 활동하는 조원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작성했다고 한들, 조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하지 않길 바란다. 모두 각자 역량만큼 열심히 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포스터 논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남들보다 더 많은 활동을, 다른 누구는 조금 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연구방법론을 수월하게 들으려면, 강의계획서에서 살펴볼 수 있듯 3학년 전공으로 개설된 ‘심리검사’, ‘심리 통계’를 먼저 이수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해당 전공들을 아직 듣지 않았거나, 들었더라도 제대로 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속도가 느린 사람이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곧 활동성의 편차를 만들어 냈고, 왜 조원들이 생각보다 적극적이지 않아 아쉬웠다는 평을 남기는 경우도 발생했다.

연구방법론에 대한 소개와 왜 추천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는다. 이제는 조금 더 제목에 적합한 내용을 다루어 보려 한다.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논문 발표하기 위해선 초록을 제출하여 심사한 이후 발표가 이루어진다. 즉, 학부생들도 초록까지는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중인 사람일수록 많은 논문을 읽어보고, 그리고 실제 논문 전체는 아닐지라도 초록까지 작성해 보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셈이다.

한 학기가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이 프로젝트 하나로 학생들마다의 평은 매우 갈릴 텐데, 나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은 입장에서 이 활동을 하는 것이 지겹지 않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인 일이지 않은가? 만일,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이 학부생 수준의 논문을 만드는 과정이 재미가 없다면, 대학 졸업 이후의 진로를 성찰해 볼 기회가 생기는 셈이라고 믿는다. 또, 연구방법론에서 필요한 선수과목 '심리 검사'와 '심리 통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선수과목이라는 명칭을 붙여가며 수업을 수강하는 데 순서가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이 깨달음은 어떠한 목표를 세울 때 차례대로 실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예를 들어, 나는 SPSS라는 프로그램을 주로 다루지만, 여러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 Python과 R이라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곳도 많기에 이에 적절한 수업을 이수한다든지, 계량심리학으로 진학하여 데이터 분석가로 나아가고 싶은지 리서치 분야로 나아가고 싶은지를 고심하면서 각 분야에 필요한 역량을 차례대로 계획해 나가고 있다. 예전의 나에 비해 구조화 작업이 쉽게 이루어지고, 내가 정말 대학원 진학을 통하여 어떤 것을 얻고 싶은지, 그리고 나는 어떤 연구자가 되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매 순간들이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가 되고 싶은지를 결정했느냐 묻는다면, 아직은 못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학부생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성실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임하는 연구자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잘", "좋은 결과를 내는" 연구자가 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 배우는 단계에서 모르는 것도 많은, 이제 겨우 무지렁이 위치에서 벗어나나 싶은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성실하게', '꾸준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전문가적 역량이 더 쌓일 때쯤에는 열심히는 당연하거니와 좋은 결과를 내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는 의지도 불태워본다.

그리고 이런 연구자의 역량 외에 더 중요한 역량이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었다. 상담심리학과생이라는 특성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적은 잘 없다. 오히려 타인과 대화하는 것이 수월하게 느껴지는 편이니 말이다. 그런데도 더 정돈된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 조원들과 상의하고,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거쳤을 때, 교수님께서 간혹 언급하시기도 하는 전문적인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조원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설명해 주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아니, 더 정확히는 어려웠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 전문성을 쉽게 풀어낼 역량이 되지 못했던 탓도 분명 있을 것이다. 나는 아직 전문가가 되기에는 멀었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내가 이해한 내용을 더 적절한 쉬운 설명으로 어떻게든 전해주는 과정에서, 나의 전문성을 더 키워야겠다는 다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적절한 소통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순간순간이었다. 미래의 나는 교수님의 피드백을 쉽게 이해할 줄 알고, 나의 연구 주제를 교수님께 적절하게 설명할 줄 아는 소통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제, 글의 막바지에 이르러간다. 연구방법론 수강에 대한 최종적인 감상을 적어보려 한다. 먼저, 나는 이 과목을 이수한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연계전공인 중독심리 전공을 듣고 있기에 필수과목이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수강해야만 하다 보니, 다른 상담심리학과생들과는 조금 다른 처지에 있긴 하지만, 필수적으로 들을 전공이 아

니었다도 나는 나를 위해 들었을 것만 같다. 아이디어가 넘치는 편은 아니라서 연구 주제를 내는 것은 어려웠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반대로 내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다른 조원들이 채워주는 경험이 매우 귀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12월 계엄을 겪고, 탄핵이 이루어지며, 대선까지 진행되었던 이번 25년 1학기에 “정치”라는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의 경향성이 어떤지 알아보는 일을 내가 얼마나 겪을 수 있을까? ‘정치, 종교, 성’ 이렇게 민감한 세 가지 주제 중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민감한 주제를 선정하였는데, 내 삶에서 무모한 도전을 해본 경험이 없었기에 나에게도 꽤 큰 무모함이었다. 감사하게도 필요한 최소 인원수를 넘기면서 분석을 할 수 있던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었는지 말로 형용하기 힘들다. 인원이 안 모일까 봐 안달복달, 결과가 안 나올지 초조해했던 경험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기도 하지만, 이만큼 초조해했기에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의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때는 정말 안도감에 “휴”하고 내뿜는 한숨이 자동으로 나왔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또, 이번에는 교신저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성적도 A+라는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았으니, 이번만큼은 정말 열심히 수업에 임했다고 자부할 만하지 않은가? 어쨌든 내 최선을 다했으므로 전혀 아쉽지 않다.

앞서 적었던 나의 경험들과 생각, 그리고 얻어간 장점들을 다른 이들도 얻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상담심리학과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포함해 전공으로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 에세이를 읽고 한 번쯤은 연구방법론을 수강할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 이론으로 배우는 수많은 양적 연구 방법들을 직접 겪어보고, 특히 사회과학 분야의 논문을 만들어지는 과정에 직접 임할 수 있게 되니 마지막 학년이 되어 이전에 배웠던 것을 총정리하는 경험을 스스로 마련해 보길 바란다.





최우수상

## 앓을 넘어 삶으로: 인간과 행동과학 강의를 통해

학과 화학생명학과

이름 노유빈

과목 인간과 행동과학

강병용 교수

### 인간과 행동과학 수강 동기

세상에 널린 것이 인간인데, 인간의 행동 특성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이러한 궁금증이 나를 '인간과 행동과학' 강의로 이끌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호기심, 즉 왜 인간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단순히 교양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그렇게 이 강의를 통해 인간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원리와 그 복잡성을 탐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간표에 인간과 행동과학을 담았다.

### 인간과 행동과학 수업 내용

이 강의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과 실험, 그리고 그 사회적·윤리적 함의를 다루는 교양 수업이다. 교수님께서서는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철학적 관점을 넘나들며 인간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입체적으로 설명하신다. 이 과목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전개되었는데, 첫 번째는 인간 행동의 유전적·환경적 결정 요인과 우생학, 두 번째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울장애와 프리온 질환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중 특히 내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우생학과 악의 평범성, 그리고 우울장애에 관한 부분이었다.

### 인간과 행동과학 중 인상깊던 부분

우생학 단원에서는, 인간의 행동과 능력을 유전적으로 규정하려 했던 과거의 과학적 시도들이 어떠한 사회적 비극으로 이어졌는지를 배웠다. 나는 과거 우생학이 실제 정책으로 실행되었으며, 특정 인종과 계층을 차별하는 근거로 쓰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우수한 유전자'라는 표현이 얼마나 위험한 전제가 될 수 있는지 깨달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무심코 사용했던 말들과 생각들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도 돌아보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과학이 항상 객관적이고 진보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이 강의를 통해 과학조차도 사회적 가치와 결합되면 얼마든지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

이어서 다룬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은 이 강의의 백미라고 할 수 있었다. 교수님께서서는 아렌트가 아이히만 재판을 통해 주장한 '생각 없는 복종'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이를 다양한 실험 사례와 함께 분석하셨다. 그중 밀그램의 복종 실험과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나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다. 나는 이전까지 악은 특별한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정상적 행위라고만 생각해왔다. 하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그저 자신의 일만 묵묵히 수행한 평범한 개인'이 어떻게 엄청난 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며, 나도 예외일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동시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윤리적 질문을 품게 되었다. 이 수업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나로 하여금 나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재점검하게 만든 계기였다.

후반부에는 우울과 우울장애에 대해 배웠다. 그전까지는 ‘우울하다’는 말이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 강의를 통해 일시적인 우울감과 실제 정신질환으로서의 우울장애는 명확히 구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우울장애의 원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과 그에 따른 치료법을 배우며, 정신 건강에 대한 나의 인식도 달라졌다. 이 수업을 들은 이후, 주변 사람이 힘들다고 말할 때 함부로 조언하거나 가볍게 넘기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고민하려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 한 사람의 감정과 정신 상태를 과학적으로, 동시에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배운 셈이다.

마지막으로 배운 우울과 우울장애에 대한 내용은, 개인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 많은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 “요즘 우울해” 같은 말을 쉽게 하지만, 실제로 ‘우울장애’는 단순한 기분 상태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배웠다. 수업을 통해 자신이나 타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좀 더 세심하게 바라보게 되었고, 우울감에 빠진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조언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인간과 행동과학 추천 이유

‘인간과 행동과학’ 강의를 강력히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통찰력과 불의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용기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강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깊이 있게 성찰하게 만들었고, 우리들 개개인의 행동이 가지는 사회적, 윤리적 함의를 명확히 깨닫게 해주었다.

특히 아돌프 아이히만과 같은 인물의 악행이 사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질 수 있다는 섬뜩한 진실을 드러냈다. 아이히만은 자신을 단순히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그의 행동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초래했다. 우리는 흔히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특별하고 사악한 존재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강의는 이러한 악행이 특별한 악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 없이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을 회피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무관심과 무책임 속에서 자라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회피하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또한 브룬힐데 품젤을 통해 나는 적어도 부끄러움을 알고, 자신의 행동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비단 역사적 비극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수많은 불의와 부도덕한 행위가 평범한 사람들의 침묵과 방관 속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스탠리 밀그램의 동조 실험은 이러한 인간 본성의 취약성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집단 속에서 다수가 명백히 틀린 답을 말할 때, 개인이 자신의 소신을 굽히고 그릇된 의견에 동조하게 되는 현상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평소 소심하고 사회에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하는 편이었기에, 이러한 실험 결과는 더욱 강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실험은 한 명이라도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옳은 목소리를 낼 때, 다른 이들도 용기를 얻어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나의 정의관을 확립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옳은 말을 하는 용기’는 혼자서는 어렵지만, 누군가 옆에서 지지해준다면 가능해진다는 사실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

나아가, 지록위마 고사를 통해 ‘옳은 말을 해주는 신하’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요즘 세상은 맞는 말이라도 하지 않고 조용히 굽신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태도처럼 비춰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강의는 이러한 침묵이 결국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진정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필요할 때는 거침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이러한 행동은 쉽지 않고, 교수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와 같이 중대한 사안에서는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메시지를 던졌다.

교수님께서서는 한국 사회의 옥시 가슴기 살균제 사태를 예로 들며, 사태가 불거진 상황에서도 일부 직원들이 해외

여행을 떠나는 등 윤리 의식 없는 행동을 보였을 때, 최소한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반론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셨다. 이처럼 교수님의 말씀들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넘어, 실제 우리 삶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주었다.

'인간과 행동과학' 강의는 나에게 윤리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가르쳐주었다. 이는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넘어, 올바른 시민으로서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다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덕목들을 일깨워주었다. 이 강의는 인간 행동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윤리적 책임을 다하며, 나아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인간과 행동과학' 강의를 주저 없이 추천한다.

## 나의 사고방식의 변화

'인간과 행동과학' 강의는 내가 대학에서 들은 강의 중 가장 많이 '생각하게 만든' 수업이었다. 나의 일상 속 멍하니 흘러보내던 순간들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예전에는 그저 지나쳤을 법한 뉴스 기사나 사회 현상 속에서 나는 이제 강의에서 배운 인간 행동의 복잡성과 윤리적 책임을 떠올리게 되었다. 더 이상 사건의 표면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이면에 어떤 집단 동조나 책임 회피의 심리가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된 것이다.

가장 크게 변한 점은 바로 비판적인 사고와 윤리적 용기에 대한 인식이다. 이전에는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불의한 상황을 목격해도 '내가 나설 필요 있을까?', '괜히 나섰다가 피곤해지지만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 침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스탠리 밀그램의 동조 실험에서처럼 다수의 의견에 휩쓸려 나 자신의 소신을 굽히는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또한 무관심과 침묵이 얼마나 거대한 악을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달았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나 역시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제는 일상 속에서 불합리하거나 부도덕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접하면, 무심코 넘어가기보다는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하게 된다. 마치 교수님께서 옥시 사태를 예로 들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던 것처럼 말이다. 물론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고, 실제로 목소리를 내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과연 이 상황에서 옳은 행동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를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침묵이 세상을 어떻게 병들게 할 수 있는지 알게 된 이상, 최소한 나의 내면에서 정의로운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비단 거창한 사회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무심코 나오는 편견 어린 발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을 접할 때도 비판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며, 주체적인 판단력을 기르려고 애쓰게 되기도 했다.

이 강의는 단지 수업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나의 일상과 사고방식을 바꾸어주었다. 지금도 뉴스나 사회 이슈를 접할 때면, '이건 우생학처럼 과학의 이름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건 아닐까?' '나는 누군가의 말에 생각 없이 따르고 있는 건 아닐까?'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다. 그렇게 조금씩 더 나은 인간으로 자라고 있다고 느낀다.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왔던 것들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겼고, 그것에 대해 글로 정리하며 스스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인간과 행동과학' 강의는 나에게 단순히 지식을 넘어선 삶의 지혜를 선물했다.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인간의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하며, 때로는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 것이다. 더 이상 멍하니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며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낀다.

## 마무리하며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되돌아보면, 이 수업은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나 자신과 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주었다. 이전까지는 교양 수업이 전공 공부와는 다소 동떨어진 별개의 영역처럼 느껴졌지만, “인간과 행동과학”을 통해 교양이야말로 인간과 사회를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나의 사고방식과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선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 배경과 구조를 살펴보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수업을 들은 이후 나는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려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좋은 강의’란 결국 수업이 끝난 뒤에도 계속 생각나고, 다시 돌아보고 싶게 만드는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인간과 행동과학”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든 강의였다. 이 수업은 단순히 좋은 성적을 넘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성장의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인간과 행동과학’ 수업은 제가 대학 생활에서 경험한 가장 탁월한 교양 수업이자,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게 해준 귀중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단지 시험을 잘 보거나 A+를 받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변화시킨 수업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꼭 추천하고 싶다.



최우수상

## 너가 쓰는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고 싶다면?

학과 **컴퓨터공학부**

이름 **신가연**

과목 **데이터베이스**

**김성완** 교수

### 데이터베이스란?

데이터베이스라는 말,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단어이다.

데이터를 다루는 학생들에겐 생소하지 않은 단어이지만, 과목명을 접하고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은 “그래서 데이터는 정확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걸까?”였다. 데이터베이스는 국가공인 SQL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 관련이 있는 과목으로, 2학기에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과목을 통해 실습을 본격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본 학기에는 오라클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배우터 교재를 사용한다. 본 교재에서는 다루는 주제와 수준에 맞는 오라클의 기능만 포함하였으며, 어떤 관계 DBMS를 사용하더라도 이 책을 학습하고 난 후에 해당 관계 DBMS의 매뉴얼을 가능한 한 쉽게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 막연함에서 구조적 사고로

컴퓨터공학부 3학년 1학기, 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 제목을 보고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3학년에 이르기 전까지만 해도 ‘개발이 나에게 맞는 일인가?’라는 고민과 함께 전공적합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 또한, 학부 3학년에만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며, 타 학과 및 타 학년은 수강할 수 없기에 전공선택이지만 사실상 전공필수인 과목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코드 짜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겠지.”라는 생각에 반항하듯 첫 수업에서 김성완 교수님의 강의자료 속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은 그것만으로 내 선입견을 단숨에 깨트렸다.

“‘관계’를 도식화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게 된다.”

이 한마디는 ‘데이터베이스’가 단순 저장 공간이 아니라 세상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언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이후 15주 동안 수업, 과제, 실습, 그리고 세 차례의 시험을 거치며, 내 사고방식은 코드 중심에서 정보 설계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 복습·이론·실습·평가가 맞물린 네 박자

수업이 끝나면 그날 배운 개념을 A4 노트 6매 분량으로 정리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나만의 필기 규칙이 따로 있었다. 정의·공식은 검은색으로, 내가 헛갈린 부분 & 스스로 찾은 해결책은 빨간색으로, 교수님이 강조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이렇게 기록하니, 2주 후 제출 시점엔 노트 자체가 늘 하나의 ‘작은 교재’가 되었다. 교수님은 노트를 PDF로 스캔해 올리면 수고했다는 말을 항상 남겨주셨으며, 모르는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면 늘 힌트를 주시며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ERD와 릴레이션을 학습하며 ERD 기호를 손으로 직접 그리며 단순히 사각형과 마름모를 배치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았다. 교수님은 “PK, FK라는 글자 하나에도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려는 철학이 담겨 있다”고 강조하며, 실제로 이들 간의 연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약조건들을 만족하게끔 시뮬레이션해 주셨다. 덕분에 ERD는 ‘시험용 그림’

이 아니라 현실 서비스의 설계도로 각인되었다.

실습 주차에서 교재 속 SQL 예제를 MariaDB에 직접 입력하면서, 문법과 개념이 손끝으로 연결되었다. 예컨대 `SELECT \* FROM EMPLOYEE WHERE dno=3;`처럼 간단한 조회에서 나아가, 최적의 연산을 할 수 있는 학습까지 이르게 되었다.

```
``sql
CREATE TABLE DEPARTMENT (
  DEPTNO INT(20) NOT NULL,
  DEPTNAME VARCHAR(30) NOT NULL,
  FLOOR INT(20) NOT NULL,
  PRIMARY KEY(DEPTNO)
);
INSERT INTO DEPARTMENT VALUES(1, '영업', 8);
SELECT * FROM DEPARTMENT;
```

터미널에 결과가 뜨자, 내가 설계한 테이블이 “살아 움직인다”는 실감이 들었다.

### 세 차례에 걸친 성적 평가

학점을 결정하는 평가는 중간·기말이 아니라 1차(5주차) → 2차(10주차) → 3차(15주차) 세 구간으로 나뉘어 있었다. 각 시험 범위가 명료해 학습량을 균등 분배할 수 있었고, 시험 성적 공개 이후 교수님께 직접 찾아가 확인한 시험지를 통해 틀린 문항을 리뷰하며 오개념을 바로잡으며 개념을 깊이 다졌다. 덕분에 성적은 늘 평균보다 20~30점 이상으로 유지했으며 내 이해도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시험이 ‘평가’가 아니라 ‘진단+피드백’의 순환 고리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교수님의 티칭 철학

김성완 교수는 코드를 쓰기보다, “왜 이 명령이 필요한가?”를 먼저 물어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셨다. 또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많은 반복을 통해 메아리처럼 귀에 남을 수 있도록 반복 숙달을 시켜주셨다. 예컨대 조인을 설명할 때 던지는 물음들에 답하려면 서비스 요구사항을 먼저 생각해야 했다. 이렇듯 교수는 기술의 맥락을 강조했고, 덕분에 우리는 단순 구문 암기를 넘어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 ERD 설계 → SQL 작성’의 전 과정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되었다.

### 교내 중앙 동아리 백엔드 세션에서의 확장

나는 학기 중 동시에 활동하던 교내 중앙 동아리 ‘멋쟁이 사자처럼’에서 백엔드 세션을 팔로업했다. 세션에서 Spring을 배우며 게시판 기능 구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데이터베이스 수업에서 진행한 과제 노트가 그대로 설계 지침이 되었다.

수업 실습에서 익힌 제약조건을 적용해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며 SQL을 구현했고, 나아가 API 연동까지 하는 경험에 이르렀다. 수업에서 배운 이론이 동아리 활동과 맞물리며, 지식 → 실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완성된 셈이다. 현재 교내 경진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사항 분석과 더불어 ERD 설계에서 SQL 작성까지 이어지는 로직이 백엔드 개발자로 하여금 필수 기반이 되어 개발에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다.

### 배움이 남긴 것

매주 복습 필기 루틴이 자리 잡히며, 다른 전공 과목도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게 되었다. 우스운 소리지만, 이제는 앱을 사용할 때마다 “이 버튼은 어떤 테이블을 참조할까?”를 무의식 중에 상상한다. 남들에게 들려주면 변태같다(?)

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전공생인 내겐 어떻게 보면 전공병이라고 할 수도 있다. SQL 문법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기면, “그건 SELECT-JOIN으로 뷰를 만들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게 되었다. 또한, 국가공인 SQLD 자격증 취득을 올해 목표로 두고 있다.

## 데이터를 읽는 눈을 키워 준 한 학기

이번 학기의 데이터베이스 수업은 단순히 학점을 위한 강의가 아니었다. 데이터라는 무형의 흐름을 도식과 코드로 구체화하는 방법, 나아가 정보 설계의 사고방식을 체득하게 해 준 전환점이었다. 복습 노트 한 권, MariaDB 실습 로그 수십 장, 세 번의 시험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나는 ‘데이터를 소비하는 사람’에서 ‘데이터를 설계하고 다루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앞으로 백엔드 개발자가 되어도, 혹은 다른 분야로 진출하더라도, 이 수업에서 익힌 구조적 사고와 반복 학습 습관은 변함없이 나를 지탱해 줄 것이다. 그래서 확신한다.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고 싶은 학생”, 혹은 “체계적인 학습 루틴을 찾는 학생” 누구에게나 이 강의를 추천한다. 나와 같은 이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공부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한다면 학기가 끝난 후, 그들 역시 세상을 데이터의 관점으로 읽어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것이라 자신한다.

그래서 나는 이 수업을 자신 있게 추천한다. 이 강의는 컴퓨터공학 전공자에게는 필수적인 기초를, 비전공자에게는 세상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시야를 선물해준다. 기술, 사고력, 학습 습관까지 함께 키워주는 이 수업은, 내가 수강한 모든 강의 중 가장 체계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수업이었다.





우수상

## 경계 너머, 감성과 기술이 만날 때

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이름 **최시은**

과목 **문학적 상상력의 3D 구현**

**노동욱** 교수

### 융합의 낯선 문 앞에서

처음 이 강의의 이름인 『문학적 상상력의 3D 구현』을 접했을 때, ‘문학’과 ‘3D’라는 단어의 조합은 낯설고 다소 어색하게 느껴졌다. 문학은 감성과 사유의 영역이고, 3D는 기술과 형상화의 영역이라고 단정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3D로 구현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람의 머릿속에서 시작된다. 경험과 감성, 사고가 어우러져 아이디어가 되고, 그것이 구체적인 형상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본다면 3D라는 기술의 뿌리는 인문학적 상상력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문학적 감수성과 경험은 3D 창작에도 깊이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관련해서 요즘 사회 전반에서 ‘융합’이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나 또한 과거에 읽었던 『그림 속 경제학』이라는 책을 통해 융합의 매력을 체감한 적이 있다. 그 책은 예술 작품을 통해 경제학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림 속에 담긴 시대적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방식이었다. 예술과 경제라는 전혀 다른 두 분야가 하나로 어우러지며 오히려 더 흥미롭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은 융합이라는 것이 단순히 두 분야의 나열이 아닌, 서로를 보완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과정임을 일깨워 주었다. 그렇기에 이번 강의에서도 두 영역이 만나 어떤 창의적인 결과를 낼지 궁금증을 안고 수강을 결심하게 되었다.

### 인문학적 사유의 확장, 시와 나의 만남

강의는 두 분의 교수님이 함께 운영하셨고, 수업 초반에는 두 차례에 걸쳐 각 교수님과 인사를 나누며 수업의 전반적인 흐름과 운영 방식을 소개받았다. 수업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 앞부분은 시를 중심으로 한 인문학적 활동을, 뒷부분은 블렌더(Blender)를 활용한 3D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중간·기말시험은 따로 없었고, 대신 전반부와 후반부 각각의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 과제와 기말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성적이 평가되었다. 덕분에, 부담 없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었고, 개별적인 흥미와 성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수업 구조였다. 전반부에선 주로 교수님이 매시간 직접 선정한 시를 제공하고, 학생이 스스로 읽고 해석하는 구조였다. 이때 중요한 점은 절대로 인터넷 검색을 따로 하지 않고 본인의 감정과 사고를 바탕으로 시를 해석하는 것이었다. 누군가의 해석을 보게 되면 주체적인 생각보다는 그 해석에 맞춰 사고가 고정돼 버린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후에는 조별로 모여 각자의 해석을 공유하고 발표하며, 서로의 시각을 넓혀가는 과정이 이어졌다. 보통 ‘조별 활동’이라고 하면 형식적이고 말을 꺼내기 힘든 부담스러운 분위기를 떠올리기 쉬운데, 이 수업에서는 시 해석에 대해 완전히 정해진 답은 없기에 정답을 맞혀야 한다는 강박 없이 자연스럽게 자유로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면서 같은 시를 읽었지만 조원들의 전혀 다른 해석을 들으며, “이런 시각도 가능하구나.” 하고 감탄한 순간들이 많았고, 그 속에서 나의 사고도 한층 깊어지고 확장되는 느낌을 받았다. 시를 통해 삶과 감정을 들여다보는 방식은 내 일상과 맞닿아 있어서 공감이 되었고, 그래서 더 흥미롭고 뜻깊게 다가왔다.

## 시 한 구절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가장 인상 깊었던 시는 '결혼에 대하여'라는 작품이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나무, 사이프러스 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으니.”라는 구절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다. 이 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이를 인간관계 전반에 대한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수록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과도한 희생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관계는 상처로 변질되기 쉽다.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한 채 사랑을 퍼붓다 보면, 돌아오는 것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커다란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렇기에 혼자서도 곳곳이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며, 적절한 거리와 여백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이 시를 통해 관계에서의 균형, 자기 돌봄의 중요성, 나와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단순히 시 한 편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철학으로 끌어와 반추해보는 경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업이었다.

## 3D 실습, 낯선 기술에 도전하다

강의의 후반부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인 '블렌더(Blender)'를 배웠는데, 한 번도 다뤄본 적 없는 프로그램이라 처음에는 막막했고 다른 학생들보다 뒤처질까 봐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교수님들께서는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춰 친절하게 인터페이스를 설명해 주셨고, 실습 시간마다 강의실을 직접 돌아다니며 일일이 피드백을 주셨다. “부담 갖지 말고 여러 기능을 눌러보며 천천히 익숙해져 보세요.”라는 교수님의 말은 큰 위로가 되었고, 동시에 얼른 익숙해져서 더 제대로 활용해보고 싶다는 욕심을 자극하였다. 수업에서는 기본적인 도형을 이용해 창문이 있는 집을 만들고, 공간에 빛을 넣는 실습, 물처럼 흐르는 투명한 재질 표현, 메탈릭 소재 표현, 산처럼 울퉁불퉁한 표면 구현 등, 다양한 활동을 차근차근 다뤘다. 단순히 기능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매시간마다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성취감도 컸다. 휴일로 인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된 날이 오히려 아쉽게 느껴질 만큼, 점점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났다. 수업을 통해 블렌더가 낯선 도구가 아니라 나의 창작 파트너로 느껴지기도 했다.

## 능동적인 학습자로의 전환

블렌더 수업을 통해 나는 단순히 수동적인 수강생에서 능동적인 학습자로 변화하게 되었다. 강의에서 배운 단축키 외에도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모르는 기능은 영상이나 글을 통해 공부하며 점점 더 프로그램에 익숙해져 갔다. 그 과정 자체가 매우 즐거웠고, 무엇보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길렀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 기존에 들었던 다른 이론 수업들은 정해진 내용을 암기하거나 따라가는 수업이 많았다면, 이 수업은 오히려 내가 생각하고 해석하고 직접 구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훨씬 몰입도가 높았다. 나만의 속도로 결과물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 재미있었고, 학기 동안 부담보다는 흥미와 즐거움이 더 컸던 수업이었다.

## 경계를 넘는 융합의 힘

결론적으로 이 강의에서 내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경계를 허무는 힘'이었다. 문학이라는 감성적, 사유적인 영역과 3D 디자인이라는 기술적, 시각적인 영역은 언뜻 보기엔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두 영역은 서로를 보완하며, 창의성을 자극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문학을 통해 상상력과 해석의 폭을 확장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술을 활용해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은 매우 창의적인 경험이었다. 이 강의는 단순히 두 분야를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진짜 융합형 교육'의 예시라고 생각한다.

## 추천의 말

『문학적 상상력의 3D 구현』은 인문학과 기술의 경계를 허물고, 창의적 사고와 표현력을 함께 길러주는 특별한 강의였다.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감성과 사고력, 표현력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교육 경험을 제공하였기에, 융합형 인재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수강해보기를 추천한다.



우수상

## 무역은 '두원테크트리'와 함께

학과 **경영학과**

이름 **한경임**

과목 **무역대론, 무역실무**

최두원 교수

‘세계화’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오히려 너무나 익숙해져서,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시대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단 며칠 만에 집 앞에 도착하는 오늘날,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나는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세계 경제와 무역의 흐름에 더욱 민감해야 된다고 느꼈다. 그래서 무역 관련 수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쉽게도 우리 학교에는 무역 수업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무역 수업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른 경영학 과목들을 수강하며 지내던 중, 3학년 2학기에 드디어 ‘무역개론’이 개설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순간, 무역 수업을 기다려왔던 나의 오랜 열망이 떠올랐고, 예전에 무역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기억도 함께 되살아났다. 한 번쯤 접해본 내용이라는 점에서 학점 면에서도 자신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수업이기에 망설임 없이 수강을 신청하였다. 무역 과목에 대한 기대는 있었지만 사실 교수님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만큼 학교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실 것이고 나 역시 교수님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강의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를 형성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불확실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수님에 대한 기대보다는 과목 자체에 더 관심이 갔다.

### 무관심이 관심으로 바뀐 이유

나는 희한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수업시간에 졸아본 적이 없는데 대학교에 와서는 전공시간이든 교양시간이든 꾸벅꾸벅 인사하기 바쁘다. 관심 있는 분야의 수업에도 다를 게 없다. 아침 시간이든 오후 시간이든 잘 준다. 하지만 특이하게 교수님의 수업에서만은 달랐다. 3시간 연달아 하는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즐기는 커녕 눈이 반짝반짝하게 교수님 수업을 듣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물며 나 스스로도 이상했다. 내가 관심 있는 심리학 수업을 들을 때는 안 졸려고 일부러 앞자리에 앉고 교수님의 눈을 쳐다보며 애써봤지만 바로 정신을 뉘버리는 나였다. 하지만 최두원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는 나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나 역시 이해가 가지 않아 ‘나 왜 안 즐지?’라는 생각을 한 학기 내내 해봤다. 아마 교수님이 가지신 상당한 장점들 때문이 아닐까 싶다. 내가 생각한 교수님의 장점은 첫 번째로 설명을 잘하신다는 것이다. 아직도 기억에서 잊히지 않는 느낌이 있다. 첫 강의를 들을 때 내가 했던 생각은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잘하시는 교수님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였다. 첫 수업에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설명을 잘하신다. 예를 들자면 환율 변동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국내 경기가 상승한다.’라는 표현을 ‘시장에 돈이 많다.’라고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위주로 바꿔 사용해서 쉽게 설명하신다.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한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시장에 돈이 많아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상승시키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은행에 돈을 저축하려고 하겠지? 그렇다면 이득을 얻기 위해 금리가 높은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가 많아지고, 그럼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상승하고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라고 설명하신다. 단순히 ‘금리 상승 = 환율 하락’ 식의 암기가 아니라 관련 개념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신다. 이해 중심으로 배웠기 때문에 사고는 느려도 잘 생각해 보면 환율과 금리, 국내 경기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교수님의 말이다.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은 어떻게 더듬거

림 없이 말을 잘하시지?’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다. 또박또박한 말투로 긴 문장을 매끄럽게 이어가시는 것이 인상 깊었다. 또한 귀에 쫄쫄 들리는 목소리와 어투 덕분에 수업에 집중이 더 잘됐다. 마지막으로 요즘 일어나는 따끈 따끈한 소식에 대해 얘기해주신다. 수업이 시작되고 나서 5~10분은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과 관련된 국제 정세 혹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정책 등의 뉴스 기사나 동영상을 시청한다. 한창 주목받는 뉴스에서 봤던 내용을 수업 시간에 배우니 왜 지금 이게 논란거리인지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세계 정세에 대해 배우니 흐름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경영학도로서 진로를 나아갈 때도 좀 더 넓은 시야로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의 이야기에 따라서 이제 나는 과목보다는 교수님께 기대하게 되었고, ‘두원테크트리’를 통해 무역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 ‘두원테크트리’ 타는 방법

‘두원테크트리’에는 두 가지 수업이 있다. 첫 번째 수업은 ‘무역개론’이다. 무역개론은 무역정책과 무역이론, 다자간 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등 무역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다. 나 역시 무역개론을 통해 무역 관련 용어, 협정, 대외법, 환율, 관세, 자유무역 등 무역의 기초를 배웠다. 무역을 처음 접하는 학생이라면 생소할 수 있지만, 교수님 설명 중심의 수업이라 집중만 한다면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다. 교수님의 장점인 쉬운 설명 덕분에 무역에 대해 잘 몰라도 따라갈 수 있었다. 그래서 교수님의 과목에서는 이야기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생각을 하다가 흐름을 놓치면 수업이 바로 지루해질 수 있으니 집중해야 한다. 교수님은 중간·기말고사, 과제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신다. 과제는 개인 발표 과제로, 주제와 발표 순서를 미리 공지해 주신다. 나는 ‘중국 공급 과잉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과제를 통해 중국의 과잉생산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무역 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301조로 중국을 견제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정세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졌다.

두 번째는 ‘무역실무’이다. 무역실무는 무역개론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내용을 다룬다. 무역계약, 보험, 운송, 인코텀즈 2020 등을 배운다. 인코텀즈는 무역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며, 무역 관련 진로를 계획하는 학생에게는 필수적인 지식이다. 사회에서는 배울 기회가 적기에 수업을 통해 확실히 익혀야 한다. 교수님의 설명은 이번에도 명쾌했다. 다만 이번 수업은 개론보다 용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중간고사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기말고사에서는 자만으로 인해 성적이 낮았다. 단순히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며 문제풀이 연습이 병행돼야 한다. 무역실무 수업도 중간·기말고사, 발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발표는 ‘무역회사 소개’였으며, 나는 OEM 방식을 사용하는 ‘영원무역’을 소개하였다. 이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발표했고, 청중과 아이컨택을 하며 발표하는 법을 배웠다. 더 많은 수업을 듣게 된다면 나의 성장도 이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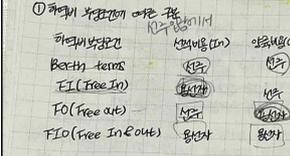
## 무역개론 vs 무역실무

두 수업을 비교하자면, 무역개론은 개념 중심, 무역실무는 실무 중심이다. 초심자라면 무역개론을 먼저 듣고 실무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무역실무에서 다루는 내용은 무역영어나 국제무역사 자격증 시험과도 연결된다. 교수님의 수업을 기반으로 용어 정리와 문제풀이를 병행한다면, 자격증과 시험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꼭 무역 관련 수업을 듣고 싶었는데, 졸업 전에 수강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 수업이 잘 가르치시는 교수님의 수업이었기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감사한 마음이 크다. 과제 발표를 통해 나도 모르게 성장한 모습을 발견한 것도 놀라운 경험이었다. 다음 수업이 있다면 한층 더 발전한 나를 기대해본다. 무역실무에서 A+를 받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그만큼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학습에 임해야 함을 배웠다. 교수님은 항상 종강 때 “방학에 뭐라도 해보라”고 하셨다. 이번 방학에는 다시 무역 문제집을 펼쳐 무역영어와 국제무역사 1급에 도전할 예정이다. 이젠 이론도 많이 익혔기에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다. 다음 학기에는 교수님의 더 다양한 수업을 수강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특히 외환전문역과 관련된 강의도 개설되기를 바란다. 무역을 진로로 삼지 않더라도, 교수님의 수업은 꼭 들어보기를 권한다. 국제 정세와 문제를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어쩌면 당신을 무역이라는 낯선 길로 인도할지도 모른다.

① 국제무역계약 하위 및 계약자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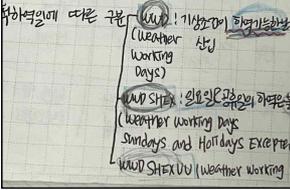
! 하위 부양과 계약자 선정은 국제무역계약의 중요한 부분  
! 계약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하위 부양을 X  
(하위 부양은 불가능 부분)



② 계약자 선정  
! 신원 조사와 계약자 선정은 신원조사  
! 계약자 선정은 신원조사  
! 계약자 선정은 신원조사

③ 계약자의 선정 방법  
1) 신용조사: 우인, 등재법 등 여러 가지  
Running Laydays  
! 신용조사: 우인, 등재법 등 여러 가지  
Running Laydays  
! 신용조사: 우인, 등재법 등 여러 가지

관심사 조사: 신속한 한 신원조사 방법  
CQR (Customer Quick Response)



② 운송서류

1. 선하증권 (Bill of Lading, B/L)  
! 하위 부양을 위한 선하증권의 중요성  
! 하위 부양을 위한 선하증권의 중요성

! 하위 부양을 위한 선하증권의 중요성  
! 하위 부양을 위한 선하증권의 중요성

① 선하증권의 종류  
! 선하증권의 종류  
! 선하증권의 종류

② 선하증권의 작성  
! 선하증권의 작성  
! 선하증권의 작성

! 하위 부양을 위한 선하증권의 중요성

A note of caution to buyers  
EXW is the freedom rule which imposes the least set of obligations on the seller

! 하위 부양을 위한 선하증권의 중요성  
! 하위 부양을 위한 선하증권의 중요성

! 하위 부양을 위한 선하증권의 중요성  
! 하위 부양을 위한 선하증권의 중요성

! 하위 부양을 위한 선하증권의 중요성  
! 하위 부양을 위한 선하증권의 중요성

! 하위 부양을 위한 선하증권의 중요성

! 하위 부양을 위한 선하증권의 중요성  
! 하위 부양을 위한 선하증권의 중요성

! 하위 부양을 위한 선하증권의 중요성  
! 하위 부양을 위한 선하증권의 중요성

! 하위 부양을 위한 선하증권의 중요성  
! 하위 부양을 위한 선하증권의 중요성

! 하위 부양을 위한 선하증권의 중요성  
! 하위 부양을 위한 선하증권의 중요성





우수상

## 배우고, 울고, 성장하다 - '시스템분석 및 설계' 수업이 내게 남긴 것들

학과 인공지능융합학과

이름 서윤빈

과목 시스템분석 및 설계

최성욱 교수

### 대학에서의 배움이란

단지 강의실에 앉아 지식을 듣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나는 이번 학기 '시스템분석 및 설계' 수업을 통해 온몸으로 배웠다. 경영정보시스템 전공 과목으로 수강한 이 수업은 단순한 프로세스 분석과 설계 방법론을 배우는 것을 넘어, 교수님과의 밀접한 상호작용, 학우들과의 협업,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진지한 탐색을 경험하게 한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 강의 소개: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배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수업

'시스템분석 및 설계' 수업은 정보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분석 및 설계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히 이론을 암기하는 것이 아닌,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 안에서 요구사항을 도출하며, 이를 설계로 구체화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 수업이다.

이 수업에서는 총 세 가지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각각의 프로젝트는 현실 기반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실제 시스템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삼육대학교 학생식당의 적정 규모를 분석하는 프로젝트였고, 두 번째는 Su-Wings 수강신청 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분석하는 과제, 세 번째는 Su-Wings 졸업 시뮬레이션 정보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과제였다. 이 세 프로젝트 모두 폭포수 모형(Waterfall Model)의 1 단계부터 4단계까지, 즉 문제 정의 및 업무 리스트(Identification and Selection), 계획 수립(Initiation and Planning), 분석(Analysis), 논리적 설계(Logical Design) 단계를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방법론이 어떻게 현실 속 문제 해결에 적용되는지 체득할 수 있었다.

수업은 강의 위주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이 아니라, 문제 해결 중심의 실습 과제, 팀 프로젝트, 그리고 개별 연구 과제 등 다양한 활동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단순히 '알게 되는 것'을 넘어서, 직접 '해보는 것'을 통해 배우는 구조였다.

이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은 교수님께서 "수업만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 배우고 싶다면 질문하고 찾아오라"고 거듭 강조하셨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수업의 핵심 철학이었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도록 유도하셨고,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열린 문을 제공하셨다. 그러나 그 문을 노크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교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두렵고 어려웠지만, 점차 '질문'이라는 행위가 수업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물으며 성장하는 학습자가 되어갔다.

이처럼 '시스템분석 및 설계' 수업은 단순한 과목이 아니었다. 이론과 실습, 강의와 상호작용, 사고와 감정이 깊이 연결된 배움의 총체적 과정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서 '지식을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적용하는 것'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만든 수업이었다.

## 처음엔 두려움, 나중엔 열망으로 - 교수님과의 만남 속에서의 변화

개인 과제로 교수님을 찾아갔던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과제에서 막힌 부분이 있어 질문하러 갔지만, 긴장된 탓에 말이 꼬이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교수님께서도 몇 번이고 무슨 말이며 여쭙보셨고, 똑바로 말하라고 하셨다. 나는 그 말에 당황하고 답답한 마음이 폭발해버렸다. 결국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고, 30분 넘게 울면서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다소 당황스럽고 서툰 순간이지만, 교수님께서 “네가 흘린 눈물만큼 나중에 반드시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이 내게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어렵고 무서운 것이 아닌, 더 배우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열망이 커졌다. 여전히 교수님께 질문하러 가는 건 쉽지 않았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내 마음엔 ‘배우고 싶다’는 의지가 ‘망설임’보다 강해졌고, 그 감정이 내 발걸음을 이끌었다.

##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 - 협업과 공유의 가치

이 수업은 팀 프로젝트와 학습을 통해 지식의 실제 적용을 강조했다. 특히 삼육대학교 학생식당 시스템 분석 과제와 Su-Wings 수강신청/졸업 시뮬레이션 정보시스템 분석 과제는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했기 때문에, 단순히 책상에 앉아 있는 학습이 아닌 ‘바로 뛰는 학습’이었다. 학생식당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얼마나 오는지, 어느 시간에 몰리는지를 관찰했고, 수강신청 시스템 분석에서는 학교 요람을 직접 조사하고 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정보의 정확성과 근거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또한 이 수업은 내가 ‘정보 공유’에 대해 가진 편견을 무너뜨렸다. 예전에는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발표와 협업 과정에서 다른 팀의 결과물을 보고 벤치마킹하며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고, 우리가 가진 정보를 나누면서 더 정교한 피드백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정보를 나눈다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수업이었다.

낮선 환경 속 진짜 협업을 배우다

이번 학기 프로젝트는 평소 함께하던 친구들과가 아닌, 낯선 학우들과 팀을 이루었다. 처음엔 의견 조율이 어렵고 서먹했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더 논리적인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 만들어졌다. 나는 그 안에서 내가 가진 생각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려 애썼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흡수하는 법을 배웠다.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낯선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통해 협업 능력과 설명력이 성장했다.

특히 잊지 못할 경험은, 어느 날 오후 2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학교에 남아 학우들과 함께 교수님께 방법론을 배웠던 날이다. 지치고 피곤한 시간 속에서도 배움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의미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은 단순히 하나의 개념을 배운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세’ 자체를 몸으로 익힌 날이었다.

## 수업이 남긴 변화와 결심

‘시스템분석 및 설계’ 수업을 통해 나는 무엇보다 ‘왜’,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었다. 이전에는 교수님의 평가 기준에만 맞춰 과제를 수행했고, 그저 ‘결과’를 내는 데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 나는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달았다. 특히 폭포수 모형의 1단계인 문제 식별과 2단계인 계획 수립 과정에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전체 프로젝트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배웠다. 이러한 접근은 내 학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

또한 이 수업은 복기의 중요성도 알려주었다. 프로젝트를 반복하며 복기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단순한 완성이 아닌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체감했다. 앞으로의 나는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돌아보고 개선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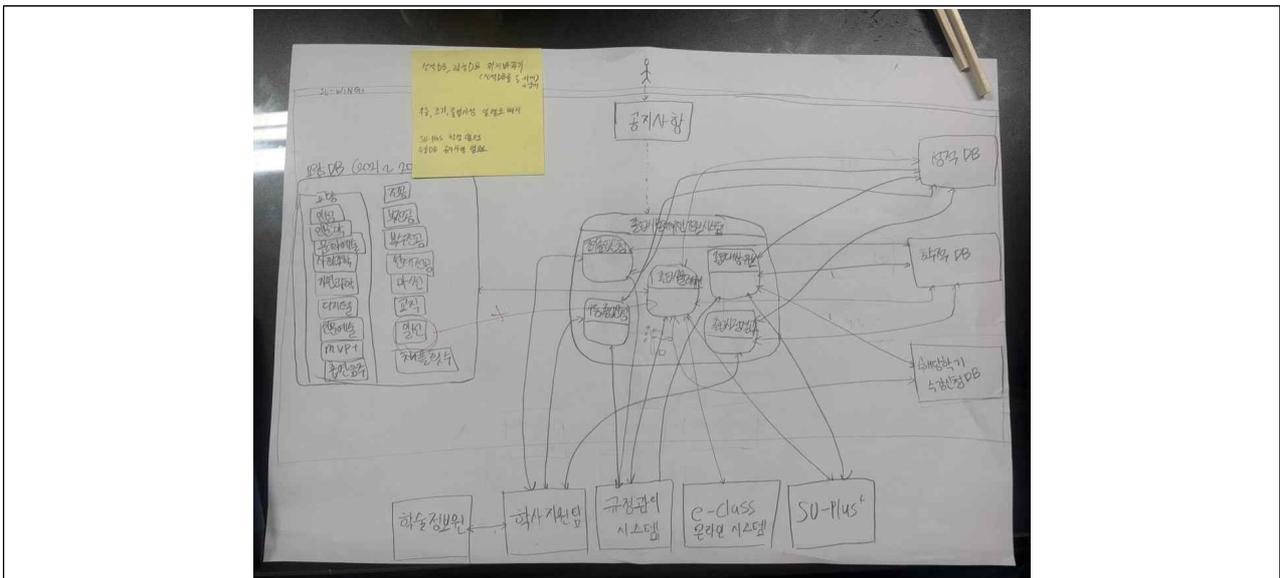
## 맺으며: 이 수업을 우수 강의로 추천하는 이유

‘시스템분석 및 설계’는 단순한 커리큘럼이나 성적이 아닌, 한 사람의 태도와 감정,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수업이었다. 교수님의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이 스스로 사고하고 질문하며 배우도록 유도했다. 과제와 프로젝트는 현실 기반 문제를 다루며 실무 감각과 논리력을 동시에 길러주었고, 무엇보다 인간적인 만남과 감정의 동요를 통해 내 안의 ‘성장 본능’을 일깨웠다.

나는 이 수업을 통해 울었고, 질문했고, 끈질기게 매달렸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진짜로 성장했다. 그렇기에 이 수업은 단연코 '우수 강의'이며, 많은 학생들이 경험해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강의다.

순번	과목번호	교과목코드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	평균점수	총점	등급	수강구분	재수강사유	성적인정구분
1											
2											
3											
4	917	1002668	시스템분석 및 설계(캡스톤디자인)	전공선택	3	4.5	97	A+	일반		인정

[사진 1] '시스템분석 및 설계' 성적



[사진 2] 저녁까지 남아 교수님께 배웠던 날

[사진 3] 팀 + 개인 과제 자료



#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데, 그 방법을 모를 때

학과 **상담심리학과**

이름 **최자연**

과목 **회계원리 I**

임태종 교수

고등학생의 티를 벗지 못한 채 신입생으로 입학한지가 엊그제 같던 저는, 어느새 이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캠퍼스의 낭만보다는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표를 짜는 데에 더 열중하였으며, 그 외에는 높은 학점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뒀습니다. 그렇게 2학년을 마친 후 1년 동안 휴학을 했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올해, 복학생 3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을 흔히 '사망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 왜인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던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이 여운을 그저 흘려보내기엔 아쉬워, 유독 저를 힘들게 했지만 그만큼 성장하게 만든 한 강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기로 마음먹고, 휴학 전 2학년 2학기에 두 과목 정도를 부전공으로 수강했습니다. 제가 입학할 당시 상담심리학과는 전공 필수 과목이 없어 부담이 덜했던 반면,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기 위해서는 여섯 개의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그중 가장 걱정되고 두려웠던 두 과목이 있었는데, 바로 회계원리와 재무관리입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과 작별하고 다시 만나지 않기를 소망했던 터라, 다시 마주하게 된 이 만남이 결코 반갑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는 심정으로 이번 학기에 임태종 교수님의 회계원리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 끈기와 인내, 그리고 '모름' 자체를 즐긴 학습 과정

이번 학기 회계원리는 오전반, 오후반 두 반이 개설되었고 저는 오전반을 수강했습니다. 수업은 교수님이 e-class에 올려주시는 강의를 시청하고 강의자료를 통해 스스로 공부한 후, 그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매주 퀴즈를 보고 교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설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업 첫날, 교수님과 저만 아는 아이디어를 만들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이름 대신 이 아이디어를 사용해 세 번의 시험이 누적될 때마다 총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점수를 공유해 주셨고, 이를 통해 저는 현재 반 안에서 몇 등인지, 다른 학생들과 점수 차는 얼마나 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퀴즈 외에 다른 과제는 없었으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이 각각 30%로 환산되어 총점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수업 진행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합니다. 과제 없이 시험만 보니 매주 퀴즈를 보더라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매주 퀴즈를 보고 성적에 반영된다는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아 포기하고 싶은지 말입니다. 저는 정확히 그 중간이었습니다.

보통 시험 2주 전부터 시험 공부를 시작하지만, 매주 퀴즈를 보게 되니 말 그대로 정말 매주 공부해야 했습니다. 4번째 퀴즈까지는 다 맞거나 하나 틀리는 정도여서 '이 정도면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려는 찰나, 교수님께서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하셨고 정말 그러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몇 번이고 같은 강의를 돌려보고, 연습장에 교수님을 따라 풀이를 반복했습니다. 교수님의 풀이를 보면 다 알 것 같은데 혼자 풀면 자꾸만 틀리고 실수를 하는 제 자신이 정말 밉고, 웃기기도 하고, 슬펐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습니다. 어느 날은 공부를 하고 갔음에도 퀴즈에서 4개나 틀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과 작은 좌절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들었던 수업이 있었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어차피 해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 후 제가 내린 결론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마법 같은 공식은 항상 통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즐기는 방법을 모르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 나에게 조금 베푼 시험 준비

회계는 단순히 암기만으로 되는 과목이 아니었습니다. 상황과 금액이 주어지면 계정과목을 정하고, 차변과 대변의

위치를 결정하며, 증감 여부에 따라 그 위치를 바꿔주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죠. 결산일을 기준으로 수정 분개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산표도 수정하는 것, 그리고 10단계 정산표까지 작성하는 법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습니다. 특히 배점이 가장 높았던 정산표 문제는 숫자를 쓰고 차변과 대변 합이 맞지 않을까 봐 떨면서 계산기를 두드렸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다행히 문제는 맞췄지만, 많은 시간을 써버리는 바람에 다른 몇 문제들을 풀지 못했습니다. 기말고사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분류, 수취채권, 은행계정조정표, 매출할인, 재고자산, 다단계 손익계산서, 재무비율 분석 등 심화된 내용을 배우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아침 시험이라 뇌를 깨우려 입에 초콜릿 하나를 넣고, 시험 직전까지 연습문제를 풀었습니다. 회계원리 시험이 이번 학기 마지막 시험이라 끝나고 나면 마냥 개운할 줄 알았던 예상과 달리 실수는 없었는지, 계산기에 숫자를 잘못 입력하진 않았는지, 계정과목을 잘못 쓰지는 않았는지 등 조금 찝찝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늘 그랬듯 시험이 끝나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열심히 풀었지만 자신이 없다고 아쉬워하는 제 말을 들으신 엄마는 그저 “고생했어, 점심은 먹었니?” 하고 덩덤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시험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얼굴에 피부염이 생기고, 피부과 약 복용으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공부 스트레스에 피부까지 말썽이라며 속상해하는 저를 알고 계셨던지라, 엄마의 간결하지만 다정한 한마디는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는 최고의 엔딩 멘트이자 진정한 위로였습니다.

## 우수 강의, 그 이상을 배운 시간들

“회계란 무엇인가? 회계란 회계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임 교수님의 회계원리를 수강한 학생이라면, 이 질문에 3초 안에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추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다수의 강의를 수강 후 희미해지는 지식으로 남는 것과 달리, 저는 지금도 회계원리의 핵심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의에서 늘 이전 차시에서 배웠던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강조해주신 교수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놓치면 다음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회계 과목 특성상, 영상 속 교수님의 질문에 스스로 답하며 수업 내용을 상기시킬 수 있었고, 배우고 있는 내용의 큰 흐름을 파악하며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매주 퀴즈를 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임 교수님의 명쾌한 설명과 강의력에 시너지를 더했습니다.

교수님의 학생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이 수업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이 과목이 전공 필수 과목인 만큼 학생들이 성적에 많이 신경 쓴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다 못해 꿰뚫고 계셨기에, 성적에 반영되는 퀴즈와 시험의 반영 비율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민감할 수 있는 성적 산출 또한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수강생 모두가 좋은 학점을 받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업 관련 변경사항이나 공지사항이 있을 경우 수업 시간 전후로 설명해주시는 것은 물론, e-class에 공지를 올려 주셨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여러 과목을 수강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데, 교수님께서 깔끔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배려 속에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 성장, 성장 그리고 성장

피할 수 없어서 즐기려고 했다가, 즐기는 법을 몰라, 이 ‘모름’을 즐기기로 한 저는 결과적으로 B+라는 학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받은 학점 중 가장 낮은 학점이었지만, 처음부터 목표한 점수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제법 만족스럽습니다. 이 수업에서 얻어간 것은 단순히 학점 이상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늘 높은 점수만이 의미 있고, 그렇게 되도록만 노력했지, 강의를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임 교수님의 회계원리 수업을 통해, 경영학과의 필수 이수 과목으로서 회계 지식뿐만 아니라, 끈기 있게 문제에 맞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법을 몸소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회계원리’ 수강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저는 주저 없이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할 만하다’고 말이지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교수님의 강의 커리큘럼을 성실히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이 수업은 단순히 지식만 얻어가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모든 학우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 값진 성장을 이루고, 앞으로의 학업과 더 나아가 인생이라는 여정에서도 큰 희망과 자신감, 지혜를 얻으시기를 소망하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불안에서 자신감으로, 전자회로가 바뀌준 학습 태도

학과 인공지능융합학과

이름 김예지

과목 전자회로

이태주 교수

나는 올해 전적 대학교 로봇공학과에서 본교 인공지능융합학부로 동일계 편입한 학생이다. 동일 계열 전공이었기에 전적대에서도 전자회로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었으나, 그 수업은 다소 빠르게 진도만 나가는 방식이었고, 일방적인 강의 중심으로 진행되었기에 깊이 있는 이해가 어려웠다. 공식과 문제 풀이에만 집중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흥미를 잃었고, 수업 시간에도 내용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좌절감을 느꼈다. 결과적으로 성적도 만족스럽지 못했고, 회로에 대한 자신감은 더욱 떨어졌던 기억이 남아있다.

그러나 올해 동일 계열의 전공으로 편입한 이후 수강하게 된 '전자회로 1' 수업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구성된 수업이었다. 단순히 이론을 나열하고 암기하는 방식이 아닌, 회로의 기초적인 동작 원리부터 전류와 전압이 시간과 회로 구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3학년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서는 첫 수업 시간에 인공지능융합학부 외의 학생이 있는지를 물으셨고, 실제로 복수 전공이나 전과한 학생도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학생이 기본기를 다질 수 있도록 수업 초반을 탄탄히 설계해주셨다. 이러한 배려는 학습자 입장에서 매우 큰 안도감을 주었고, 전공 기초를 재정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직류 및 교류 회로 해석, 키르히호프의 법칙, 저항과 커패시터의 물리적인 작용 원리 등은 반복적으로 다루며, 단순 개념의 나열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결된 개념 구조로 설명되어 이해가 수월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용어들도 반복 학습을 통해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개념 간의 관계와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서 각 회로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동작하는지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단순히 문제를 푸는 과목이 아니라 사고를 요구하는 과목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전공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는 데도 큰 영향을 주었다.

무엇보다 교수님의 수업 방식이 인상 깊었다. 강의 도중 학생들에게 수시로 개념 이해 여부를 확인하며 질문을 던지는 수업 구조 덕분에,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고하며 참여하게 되었다. 단순한 질의응답이 아닌, 학생의 학습 상황을 진심으로 고려해 주는 질문들이었다. 많은 수업들이 진도에만 집중해 학생들의 이해를 놓치는 경우가 많지만, 이태주 교수님의 수업은 항상 '지금 이 개념을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가'를 중심에 두고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었다. 특히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반복하거나 다양한 시각 자료(수업 자료, PPT)와 예시를 통해 재구성해 설명해 주셨는데, 이러한 세심한 방식이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크게 높였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저항이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전체 저항을 구하고, 옴의 법칙을 이용해 각 지점의 전류나 전압을 계산하는 문제를 수업 시간에 함께 풀어보며, 실제 수치 대입을 통해 개념을 체화할 수 있었다. 이처럼 추상적인 이론이 아닌 구체적인 수치를 다루는 연습은 회로 해석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반도체 트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회로 과목은 전공 역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부담도 컸지만, 이번 수업은 매주 아주 조금씩이라도 개념을 쌓아가고 있다는 실질적인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수업 전에는 반복되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강의를 들으면서부터는 스스로 질문하고 해석해나가는 능력이 조금씩 자라나는 걸 체감할 수 있었다. '발전 없는 제자리걸음'이라는 감정이 '확실히 나아지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뀐 값진 경험이었다. 과거에는 수업 내용을 복습할 때마다 어디서부터 다시 봐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번 수업에서는 매주 다른 내용이 서로 연결되며 자연스럽게 이해의 깊이가 더해졌다.

이와 함께 기억에 남는 또 하나의 요소는 교수님의 시험 운영 방식이었다. 회로 과목은 대체로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이 많고, 나 또한 그중 한 명이었다. 교수님께서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심리를 깊이 이해하고 계셨고, 시험 문제 또한 수업 내용에 기반한 문제 중심으로 출제하여 과도한 불안감 없이 응시할 수 있었다. 낯설고 복잡한 응용보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구성된 시험은 오히려 학습 효과를 극대화했고, 많은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중간고사 이후 교수님께서서는 단순히 점수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짚어주셨다. 특히 중간고사 문제 풀이 시간에는 단편적인 정답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1, 2번과 같은 기초 문제들부터 고난도 문제들까지 순차적으로 풀이해 주시며 수업 시간에 강조된 개념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셨다. 해설을 진행하실 때는 강의 중심이 아닌, 학생 개개인에게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했나요?”와 같은 질문을 통해 함께 사고하고 풀어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셨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문제 해결 전략뿐만 아니라, 회로 개념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졌다. 더불어 교수님께서서는 문제풀이 접근 방식에 대한 해설도 병행해 주셔서,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수업 구조는 문제 해결력뿐 아니라, 회로 개념에 대한 응용 능력까지 자연스럽게 길러주는 효과적인 학습 방식이었다.

이 수업을 통해 나는 회로 과목에 대한 흥미를 되찾았고, 동시에 실질적인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 전까지는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 멀게만 느껴졌던 과목이었지만, 이번 학기를 통해 나 자신이 흥미를 느끼고 꾸준히 학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막막했던 과목도 결국엔 나의 방식대로 천천히 접근하면 이해할 수 있고, 실제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 이전 학교에서 회로 수업을 들었을 당시에는 B0라는 성적을 받았던 반면, 이번 학기에는 같은 회로 과목에서 A0를 받을 수 있었다. 단순한 점수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과거에는 무작정 외운 공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었지만, 이번에는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해석하며 답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이해가 바탕이 된 결과라고 느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목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앞으로의 전공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회로에 대한 흥미가 높아짐에 따라 다른 전공 과목을 공부할 때에도 개념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연습을 하게 되었고, 복잡한 개념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리하며 접근하는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학습 태도의 변화는 회로 과목을 넘어서 전반적인 학문적 자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 덕분에, 나는 2학기에도 ‘전자회로 II’ 과목과 함께 이태주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다른 회로 관련 수업을 적극적으로 수강할 계획이다. 이 강의는 단지 좋은 성적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전공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고 사고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수업이었다. 회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학생,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자신감을 잃은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진정한 의미의 우수 강의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있어 이 수업은 단순한 교양이나 전공 수강이 아닌, 학문적인 성장과 인식 전환의 계기였다. 회로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하나의 언어처럼 이해할 수 있게 된 지금, 나는 이 수업이 내 전공 학문 여정에서 중요한 출발점이자 전환점이 되었다고 확신한다. 앞으로 어떤 전공 과목을 마주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차근차근 접근하며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수업이었기에 더욱 특별하게 기억될 것이다. 그만큼 나의 학문적 태도뿐만 아니라, 학습을 대하는 자세 자체를 바꾸어준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과목명	학점	성적	전공
디지털논리회로	3	B+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회로및시스템	3	B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적대학교 회로 과목 성적

전자회로 I	3	A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래형자동차공학	3	A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교 회로 과목 성적



# 준비된 도전, 그 출발선에 서게 한 수업

학과 **항공관광외국어학부**

이름 **김진경**

과목

**항공관광 실무 일본어 코칭,  
취업정보분석과 입시전략**

**김남경, 김치성** 교수

## 서론 | 도전의 시작, 한일 대학생 연수사업

2024년 10월, '2025년 한일 대학생 연수사업' 모집 공고를 접했을 때, 저는 이 기회를 반드시 붙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어학연수와 인턴십,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의 교류라는 사업의 취지는, 제 진로 목표와 국제적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열망에 꼭 맞는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겨울방학에는 국내 기업에서 인턴십을 병행하느라, 해당 프로그램에 필요한 면접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인턴 생활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절실하게 느낀 것은 외국인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즉 실질적인 언어 실력과 문화적 이해력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외국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일본 연수사업은 단순한 참가를 넘어 스스로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결정적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그런 절실함 속에서, 저는 이 프로그램에 반드시 합격하고자 다짐했고, 그 준비의 출발점으로 '항공관광실무일본어 코칭' 수업과 '취업정보분석과 입시전략'의 두 과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2. 본론 | 나를 성장시킨 두 개의 수업

### 2-1. 실무 언어 이상의 가치를 배운 '항공관광실무일본어 코칭' 수업

'항공관광실무일본어 코칭' 수업은 일본어 실력을 단순히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회화 능력과 비즈니스 매너까지 폭넓게 다루는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항공·관광·호텔 분야의 면접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그에 맞는 자연스러운 일본어 표현과 억양, 경어 사용법을 반복적으로 지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 질문에 대한 나만의 일본어 답변을 직접 작성해 보았고, 교수님께 개별 피드백을 받으며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갔습니다. 특히 자기소개, 장점과 단점, 지원 동기, 위기 극복 경험 등 면접에서 반드시 나오는 핵심 항목들을 하나하나 작성하고, 이를 일본어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연습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각 항목마다 교수님께서 예시 문장을 먼저 제시해 주신 뒤, 그것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문맥 속에 녹여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설명해 주셔서, 단순한 암기식 표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설득력 있는 흐름의 문장을 쓰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성 절차와 논리 구성 방식은 제 답변의 완성도를 눈에 띄게 높여 주었습니다. 또한 교수님은 면접의 내용뿐 아니라 형식적 예의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면접장 입장 시의 인사법, 앉는 자세, 퇴장 시의 매너 등 기본적인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일본의 문화적 의미를 설명해 주셨고, 이를 통해 저는 단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이라는 상황 전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김남경 교수님께서 일본어 문법과 관련된 연구로 수상하신 경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저에게는 신뢰감을 높여 주는 요소였습니다. 실제로 교수님은 문법이나 표현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단순히 정답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배경 맥락과 상황에 따른 차이까지 함께 설명해 주셔서 학습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덕분에 저는 일본어에 대한 두려움을 점점 줄이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 중간고사

특히 중간고사에서는 일본어 면접 시뮬레이션이 실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면접관 앞에서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예상 질문에 답변하며, 입장과 퇴장까지의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연습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등장 시의 인사법, 의자에 앉는 동작, 손의 위치, 시선 처리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했기에 긴장감이 컸

지만, 그만큼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중간고사 직후 곧바로 '한일연수대 학생 인턴십' 면접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업의 시뮬레이션은 여행연습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시뮬레이션 당시에는 제가 준비했던 문장을 말하는 데 급급해, 면접관과의 자연스러운 눈맞춤이나 억양, 태도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말의 내용뿐 아니라 태도와 분위기 전체가 면접의 일부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히 외운 문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대화하듯 진심을 전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후 수업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는 연습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교수님의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안정된 말하기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 이 수업을 수강했을 때의 저는 일본어 면접 자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준비 부족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습과 피드백, 반복 학습을 거치며 제 부족했던 점들을 스스로 인식하고 극복해 나가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언어 능력의 향상을 넘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 ● 기말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는 회사 내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회화 대사문을 분석하며, 적절한 경어체 표현을 선택하고 응용하는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어 하나, 어미 하나의 사용이 듣는 이에게 미치는 인상을 좌우할 수 있기에, 일본어 특유의 높임 표현과 격식 있는 말투를 상황에 맞게 구사하는 법을 배우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그 언어 사용의 배경에 있는 일본의 조직 문화와 소통 방식, 특히 '보고-연락-상담(報·連·相)' 등 기본적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원칙에 대해서도 함께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말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 속에서 언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힘을 키울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 저는 일본어 면접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표현력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소통의 자세까지 함께 익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막연했던 일본어 면접이었지만, 교수님의 세심한 지도를 바탕으로 실전 감각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고, 나아가 국제적 커뮤니케이션을 준비하는 태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 ★ 수업을 준비하는 후배에게 전하고 싶은 팁

중간고사는 실제 일본어 면접을 시뮬레이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면접 매너 전체 흐름을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을 열기 전 인사하기, 의자 옆에 서서 정중하게 인사한 후 착석하기, 퇴장 시 다시 인사하기 등의 과정은 단순히 형식이 아닌, 일본 면접 문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결코 빼먹어선 안 됩니다. 또 말투보다 중요한 건 적극적인 태도와 눈빛이라는 교수님의 조언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응대하는 모습이 큰 평가 요소가 됩니다. 기말고사는 교과서에 실린 비즈니스 회화 문장과 표현표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문장과 표를 암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책만 반복해서 읽기보다는, 스스로 예상 문제를 두세 개 정도 만들어 보고, 실제 면접처럼 말해본 후 자기 스스로 채점해 보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 방법은 기억에도 오래 남고 실전 감각도 기를 수 있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 2-2. 전략적 글쓰기를 배운 '취업정보분석과 입시전략'

'취업정보분석과 입시전략' 수업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나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략적 글쓰기를 배운 '취업정보분석과 입시전략' 수업은 제가 진로를 구체화하고, 그것을 글과 말로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데 큰 전환점이 되어 준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을 맡아 주신 강사님은 실제로 다양한 기업의 면접관 활동을 하셨던 분으로, 직접 면접 현장을 경험하고 계신 생생한 시각을 강의에 녹여내 주셨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무 기반의 구체적인 팁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셨기에 강의의 모든 내용에 신뢰가 갔고, 매 수업마다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 단계별로 알려주셔서, 다양한 유형의 샘플을 제시해 주셨고, 나만의 강점을 어떻게 스토리로 풀어내야 하는지, 어떤 문장이 채용 담당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지를 세밀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모든 과제에 대해 일일이 피드백을 주셨고, 그 피드백을 통해 저는 기존에 막연하게 작성하던 자기소개서를 논리적 구조와 진정성이 함께 살아 있는 글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2025 한일연수대학생 인턴십' 지원 과정에서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고, 그 성과의 밑바탕에는 이 수업에서 배운 전략과 연습이 있었습니다.

## ● 중간고사

중간고사 과제로는 '기업, 대외활동, 인턴십'을 포함해 총 3곳에 지원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각 지원처의 특성과 요구 역량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해야 했기 때문에, 단순한 글쓰기 이상의 목표 설정, 경험 정리, 표현 방식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제를 통해 저는 실제 취업 시장에서 쓰일 글을 미리 준비해 보며, 목표 조직의 특성과 나의 경험을 연결 짓는 글쓰기 방식을 깊이 있게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단순한 과제 수행을 넘어, 제 진로를 명확히 바라보는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 ● 기말고사

기말고사에서는 예상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면접 대응 전략뿐 아니라, AI 역량 검사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모의 면접을 체험하였습니다. 처음 접해 보는 방식의 면접이었기에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강사님께서 다양한 플랫폼과 AI 평가의 기준, 실전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주셔서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고 차분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질문에 대응하는 순발력과 구조적 사고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면접이라는 상황에 대해 한층 더 실전 감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단순히 '취업 준비'라는 도구적 목적을 넘어서, 제가 나라는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 밀도 높은 피드백, 다양한 실전 과제를 통해 저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과 스스로를 믿고 표현하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진심을 바탕으로 취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3, 4학년 학생이라면 이 수업을 꼭 수강하길 추천하고 싶습니다.

## ★ 수업을 준비하는 후배에게 전하고 싶은 팁

이 수업은 Pass/Non-pass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과제 제출 기한 내에만 충실히 제출하면 무난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가 많고 실전과 연결된 내용이 많은 만큼, 단순히 '통과만 하자'는 생각보다는 진로를 위한 기회로 삼는 것이 훨씬 의미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업 중에 교수님이 중요한 화면을 순식간에 넘기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 내내 꾸준히 캡처를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교수님께서 수업을 빠지게 된 학생에게는 PDF 자료를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날그날 실시간으로 듣고 캡처해 두는 것이 훨씬 정리하기 쉽고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중요한 스크린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항상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고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업에 꾸준히 출석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3·4학년 학생에게 이 수업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기술'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 3. 결론 | 결과보다 더 값진 성장

두 수업을 통해 저는 단순히 취업 준비를 넘어서, 제 경험을 돌아보고 진심을 담아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본어 면접에 대한 실전 감각부터 자기소개서 작성의 전략까지, 실제 지원 과정에 직접 적용 가능한 내용이 많았고, 덕분에 '2025 한일연수대학생 인턴십'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중심의 수업 구성과 교수님의 밀도 있는 피드백은 지금도 큰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로와 취업을 진지하게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이 두 수업은 꼭 추천하고 싶은 강의입니다. 두 수업은 단순히 제 이력서 한 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제 삶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해주셨기에, 단지 수업이 아닌 인생의 한 장면으로 오래 기억될 경험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따뜻한 시선과 세심한 피드백은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 148



+82 2-3399-3233 >

5월 13일 (화) 오후 3:00

**[2025 한일대학생 최종합격자 결  
[Web발신]  
[2025 한일대학생 최종합격자 결과  
안내]**

안녕하세요.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  
본부입니다.  
2025 한일대학생연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귀하께서 지원하신 본 사업의 최종  
합격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다음과 안내  
하오니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엔테이션 안내]  
○ 일시 : 2025.5.19.(월) 17:00~  
※시작시간 15분 전까지 장소 도착  
○ 장소 :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회의실(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815)  
○ 카카오톡 단톡방 입장 : [https://  
open.kakao.com/o/oiFK.I7vh](https://open.kakao.com/o/oiFK.I7vh)



문자 메시지



# 배움의 해상도를 높여준 일상 속 생약

학과 약학과

이름 송화윤

과목 생약학

이바을 교수

생약학은 천연물에서 유래한 약인 생약에 대해 연구하며, 모든 약학의 근원이 되는 학문입니다. 생약학1 강의는 생약의 생산, 품질 관리, 약효 성분의 생합성 경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생약학의 총론과, 개별 생약의 성분과 약리 등 특징을 다룬 각론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생약학이라는 학문의 역사가 매우 긴 만큼 배울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강의 시간 동안에는 교수님께서 진도를 나가시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학생들이 직접 생약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것은 과제로 병행되었습니다. 약령시장을 조별로 탐방한 후 영상을 제작해 발표하는 조별 과제와, 약초 관련 영상을 시청한 후 소감문을 작성하는 개인 과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생약학을 우수 강의로 추천하게 된 이유는 약학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해준 강의였기 때문입니다. 약학과에 입학할 때 저는 신약 개발이라는 꿈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약 개발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현대 의학을 기반으로 한 최신 연구와 임상 시험을 떠올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학기에 생약학 강의를 들으며 약에 대한 관점을 더 넓힐 수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은행나무의 잎도 사실 혈행 개선 약의 주재료였고,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식물들이 각각의 고유한 약효를 지닌 생약이기도 했다는 것을 배우며 약은 실험실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약들을 하나씩 배울 때마다, 그동안 너무 좁은 시선으로 약국이나 연구실만을 약과 연관해 떠올려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병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자연 속에서도 셀 수 없이 많은 약이 있고, 그중 우리가 알아낸 생약은 아직도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목표했던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은 단순히 현대 의학을 기반으로 최신 기술을 다루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전통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온 자연의 방대한 생약을 다루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배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생약학1은 교수님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과목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교수님께서 추천하신 생약에 관련된 영상을 감상하고, 그에 대해 감상문을 2장 이상 작성하는 것이 개인 과제였는데, 이 과제의 제출 기한이 종강 이후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과제 기한이 기니까 천천히 시작해도 되겠다 정도의 생각만 있었는데, 직접 감상문을 작성하고 보니 왜 기한을 종강 이후로 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학기 초중반에 생약 영상을 봤다면 영상에 생약이 나와도 잘 모르는 약이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흘러봤을 텐데, 학기가 끝나고 생약에 대해 한차례 공부한 후에 보니 생약이 나올 때마다 각 생약의 특징과 의학적 활용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공부란 머릿속에 지식을 넣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의 해상도를 올리는 행위라 생각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거나, 단순한 가로수가 개화 시기를 맞이한 배롱나무가 되기도 한다.'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이 말을 떠올리게 하는 과제였습니다.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배움에 따라 이렇게 감상평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앞선 말의 표현을 빌리면 생약에 관한 해상도가 약간은 높아진 것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과제가 정말 오래 기억에 남겠다고 느꼈고, 동시에 앞으로의 배움이 더 기대되기 시작한 과제였습니다.

이런 뜻깊은 과제라도 바쁜 학기 중에 했다면 그저 과제를 빨리 끝내는 것에 집중하느라 과제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기한이 종강 이후라서 여유를 가지고 깊은 생각을 하며 감상문 과제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즉, 과제 기한을 약간 더 늘려줌으로써 학생들이 이런 과제의 뜻을 천천히 되새길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사소한 부분에서도 교수님의 섬세함이 돋보이는 과목이었습니다. 더불어 교수님께서 2장 가량의 감상문을 다 읽어보신 후 학생별로 코멘트까지 모두 달아주셨습니다. 이 또한 일반적인 코멘트가 아니라 정말 학생별 감상문을 다 읽어보셨음이 바로 느껴지는 코멘트들이라 더욱 감사했고 오래 기억에 남을 과제가 되었습니다.

생약학을 공부하며 공부에 대한 개인적인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생약학은 약학과 3학년 1학기 전공 필수 과목이고, 2학년 때 전공 선택 과목으로 약용식물학을 먼저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약용식물학을 수강할 때 생소한 한방 용어가 많았고, 생약별로 암기할 내용도 많아 분량에 압도되어 그로 인해 공부 방향에 대한 확신 없이 외우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학기에 생약학을 수강하며 지난 학기에 최선을 다했던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포기하지 않고 약간 과하게 준비하며 공부해둔 것이 결국 빛을 본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외국어로 수업 듣는 기분이 들었던 약용식물학과 다르게 생약학 강의는 실시간으로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생약학 첫 시간에 느꼈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학기에 했던 공부가 유기적으로 이어지고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이때의 기쁨과 확신을 되새겨보면서 이를 공부에 대한 깨달음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배우는 내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뭐라도 해두면 그게 언젠가 디딤돌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예시로 약용식물학 때 동기들과 함께 만들었던 자료를 이번 학기 생약학을 공부할 때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약학과에 재학하는 동안 어렵고 힘든 과목을 또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이 긍정적인 경험을 떠올리며 회피하지 않고 견뎌나가려 합니다.

이렇게 약학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하고, 교수님의 배려와 더불어 교수님과 정말로 소통하는 느낌이 드는 강의였기에 생약학1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배웠던 과목과 이어지는 강의라는 점에서도, 공부에 관해 수강자들이 배울 점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과목이기에 뜻깊은 추천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 동안 생약학이라는 학문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해주시고, 종강 이후의 과제에도 코멘트를 학생들마다 전부 정성스레 달아주신 이바울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평가	
평가점수	10
평가의견	영상의 퀄리티와 더불어 땀, 생약학 수업 등과 결부시켜 본인의 생각을 잘 기술하였습니다. 올림이 있던 시점에 영상이 끊겨 당황스러웠을텐데 잘 완수하였습니다.

과제로 올려주신 영상이 예전에 제작된 영상이라, 중간에 영상이 끊긴 채로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었습니다. 하필 가장 몰입하던 순간에 영상이 끝나 아쉬웠다고 감상문에 적었는데,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언급해주셨습니다. 종강한 이후에도 학생들의 과제를 모두 읽으셨음이 정성스러운 코멘트에서 느껴져 감사했습니다.

# 교육의 언어로 삶을 배우다

학과 **상담심리학과**

이름 **김태운**

과목 **스포츠교육학**

**김영미** 교수

## 복수전공의 첫걸음에서 스포츠 교육학을 마주하다

체육학과 복수전공을 처음 시작하며 본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체육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1학년 교과목이라는 점과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필기 시험 과목이라는 점에서 이 수업이 앞으로의 공부의 탄탄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수강하면서 스포츠 교육이라는 주제가 단순히 체육 현장의 교수 방법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학습적 성장과 학생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교육의 본질에 대한 성찰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복수전공의 첫 걸음을 이 수업으로 내디딘 것은 매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부담감 대신 자신감으로, 개인 학습을 넘어 팀 활동으로

김영미 교수님의 스포츠 교육학 수업은 학기 초반과 후반의 수업 내용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초반에는 교재를 중심으로 교수님의 설명과 함께 학생 개개인의 경험을 질문하며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론 학습과 더불어 퀴즈앤이라는 게임 기반 학습 플랫폼을 통해 매주 짧은 퀴즈를 풀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도 이와 비슷한 카훗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재미와 학습 두 마리 토끼를 잡았던 기억이 떠오르며 흥미롭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딱딱한 방식의 종이 시험지가 아니기에 자신이 선택한 답의 정답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참여에 대한 부담이 덜했습니다. 때문에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었고, 문제마다 교수님께서 직접 남겨두신 응원 코멘트 또한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스포츠지도사 필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또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퀴즈앤에 들어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12개의 조로 나누어 조별 자유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히 내용을 발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표를 마친 후 본인 조를 제외한 11개 조는 반드시 질문을 한 개씩 던질 것', '발표자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할 것'이라는 규칙이 더해졌습니다. 이 규칙은 학생들을 긴장시키는 동시에 팀워크와 사전 준비의 깊이를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이전까지의 발표 수업들에서는 자료 조사와 PPT 제작, 발표라는 각각의 역할을 설정한 후 서로의 역할에 크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통해 협업이란 단순한 역할 분담을 넘어서 상호 피드백과 공동 책임을 바탕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같은 수업을 듣는 학우들이 발표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이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을 보는 시선의 변화

수업을 통해 저는 스포츠 교육의 제도뿐 아니라 교수법의 다양성과 그 의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수업 중 '스포츠 교육 모형'을 학습하면서 각각의 교수법에는 고유의 장단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교수자가 상황에 맞는 전략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그동안 가졌던 교육의 틀을 흔들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태블릿과 컴퓨터를 활용한 교과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저는 이러한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과 전자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기술의 도입 자체보다 그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수 모형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저 역시 교육의 수용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사고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현 시점에서 교육은 청소년만이 아닌 전 세대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교육 역시 점차 확대될 것이며, 그들을 위한 적절한 교수법은 어떤 것이어야 할지, 그 교육이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이 되려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시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수업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이 수업을 최우선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번 학기의 경우 자격증 시험이 중간고사와 같은 주말에 예정되어 있어 시간적 부담이 매우 컸지만, 교수님께서 시험 전까지 이론 중심 수업을 구성해주신 덕분에 안정적으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오히려 수업 내용을 복습하며 시험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예상보다 자신감 있게 필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격증 취득만을 위한 수업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교육 모형을 배우는 과정은 오히려 교사나 지도자가 아닌 일반 학습자의 시선으로도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줍니다. 교육학이라는 분야는 교육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꼭 필요한 도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교육 현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교육의 방식과 구조를 이해한다면 더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제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 스포츠를 넘어 교육의 길을 비추며

스포츠 교육학 수업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교육이라는 거대한 주제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체육학이라는 학문의 일부로 스포츠 교육학을 학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포츠 교육학에 담긴 사회적 의미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스포츠 교육이 나아가야 할지 등 교육 철학까지 함께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미 교수님의 말씀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체육학이라는 학문을 배워나갈지에 대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조장으로서 조원들을 이끌며 발표를 준비하고, 팀원들과 협력하여 질문을 주고받으며 학습 내용을 심화한 경험은 단순히 한 과제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과제의 전 과정을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학 생활에서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고, 나아가 사회에서도 각기 다른 사람들과 협업해야 할 상황에서 이러한 경험이 주도성과 유연함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수업은 대학 생활을 통틀어 저에게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누군가는 높은 점수를 얻는 수업을, 누군가는 학업 부담이 적은 수업을 좋은 수업이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학업에 대한 부담은 덜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닌 소통과 고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을 이끌어내는 수업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수업이 저를 조금 더 성숙한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교육학이라는 언어로 삶의 여러 측면을 읽어내는 방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2025년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응시구분: 필기시험  
과정/종목: 일반과정 / 수영

---

검정결과	점수 : 380
	총점 : 500
	결과 : <b>합격</b>

비고

성적조회

# 논어, 다시 읽기를 추천합니다

학과 사회복지학과

이름 이해인

과목 논어 다시 읽기

정성철 교수

## 1. 나를 다시 일으킨 수업, 『논어 다시 읽기』

2025년 1학기, 나는 정성철 교수님의 『논어 다시 읽기』 수업을 수강했다. 수많은 교양 강의 중 이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학점이 필요했고, 철학적 깊이를 갖춘 강의를 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의가 끝날 즈음, 나는 알게 되었다. 이 수업은 그저 학문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청년으로서의 나를 돌아보게 하는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정성철 교수님의 강의는 공자와 『논어』를 단지 고대 철학으로만 설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답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진심으로 고민하며 함께 풀어갔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늘 담백했지만, 말 속에는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그런 진정성 덕분에 나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수업에 몰입할 수 있었다. 마치 한 사람의 철학자가 내 곁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어주는 느낌이었다.

이 수업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았다. 매주 수업은 『논어』의 한 구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해당 구절에 담긴 철학을 현대 사회 문제와 연결하여 해석했다. 학생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을 글로 정리해 제출했고, 단 한 번의 대면 토론 없이도 교수님은 매시간 학생들의 내면을 흔드는 질문을 통해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셨다.

교수님은 결코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입하지 않으셨다. 강의 시간마다 스스로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들을 던지셨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자연스럽게 사유하게 되었다. 특히 ‘AI 사회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왜 중요한가?’라는 교수님의 질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 철학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런 질문들은 단순히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립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이 수업은 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늘 직접 촬영하신 온라인 강의도 이클래스에 올려두셨다. 추가 학습을 원하거나, 해당 내용을 복기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였다. 나는 이러한 운영 방식 덕분에 수업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고 자기 주도 학습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처럼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유연한 구조는 『논어』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했다. 이러한 방식은 타 강의들과 비교해보아도 특별하게 느껴졌다.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학생이 주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서 인상 깊었다.

무엇보다 교수님의 수업에는 ‘소통’이 살아 있었다. 질문이 많은 교수님, 그 말은 곧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생각을 이끌어내는 분이라는 뜻이었다. 질문을 던지고 기다리는 침묵의 시간조차도 의미 있는 사유의 순간으로 바뀌었다. 교수님은 칠판에 그림을 직접 그려가며 어려운 개념을 풀어내셨고, 그 그림들은 하나의 비유이자 철학의 시각적 언어였다. 덕분에 내용이 머리에 오래 남았고, 철학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다. 그림 실력까지 뛰어난 교수님의 수업은, 말 그대로 이해가 되는 철학 수업이었다.

## 2. 삶을 뒤흔든 질문,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는 수업은, ‘인(仁)은 사람답게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다룰 때였다. 공자가 제자에게 한 말, “어진 사람은 남을 사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안다”는 구절을 통해 교수님은 질문을 던지셨다.

“지금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하고 있나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고, 비교와 불안 속에서 허덕이던 나는 정작 내 감정과 바람은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교수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공자의 말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인은 타인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진심으로 대해야, 타인도 진심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묻는다.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는 단지 철학적 사유를 넘어서, 나를 돌보는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졌다. 나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다. 휴대폰보다 책을 먼저 집었고, 타인과의 비교보다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이 작은 변화는 나를 다시 나답게 만들어주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누군가에게 배운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 수업을 통해 체감했다. 매주 수업이 끝날 때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러한 질문은 나를 고요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

### 3. 무너졌던 내 자신감을 다시 세운 시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업을 쉬며 나를 돌아보고, 3학년이 되어 다시 학교로 복귀했을 때, 나는 여전히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1, 2학년 내내 ‘이 길이 맞는 건가?’ 방황하며 성적도 좋지 않았고,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며 위축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논어 다시 읽기』는 일종의 구조 요청에 대한 응답이었다.

공자의 말은 내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용기를 줬다. 특히 “군자는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너그럽다”는 말은, 그동안의 나를 반성하게 했다. 남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를 깎아내리기보다,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고 꾸준히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이 깨달음은 곧 내 태도와 학업 성취로 이어졌다. 과제나 발표를 대할 때, ‘어떻게 점수를 잘 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내 생각을 진심으로 표현할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덕분에 학기말엔 높은 만족감과 성취를 느낄 수 있었다. 글쓰기 과제에서는 이전보다 더 진지하고 깊이 있는 성찰을 담았고, 발표 시간에는 주제를 내 삶과 연결해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다. 나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것이다.

실제로 나는 그 학기 동안 받은 그 어떤 수업보다 이 수업에 가장 큰 열정을 쏟았고, 『논어』에 관한 서적을 사 읽고, 온라인 강의도 빼먹지 않고 챙겨 볼 정도로 진심 어린 배움이 담긴 시간이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이 수업이 주었다.

### 4. 청년을 위한 수업, 그리고 모두를 위한 철학

이 강의를 수강하며 나는 공자가 단지 고대 중국의 성현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청년들에게도 따뜻한 멘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성철 교수님은 공자의 말을 단순히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연결해 주셨다.

특히 인상 깊었던 운영 방식은 수업 후 감상 공유였다. 각 주차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강의를 듣고 난 후 자신이 느낀 점을 짧은 글로 작성해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강의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매번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습관을 들일 수 있었다. 정성철 교수님께서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좋은 배움이 있어도 그것을 자기 언어로 만들어 체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배움이 아니다.”

이 강의에서 내가 특히 감사하게 느꼈던 점은, 교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신 ‘소감문 작성 방식’이었다. 교수님은 『논어』의 문장을 인용하거나, 정해진 형식에 맞춰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낀 점과 경험을 중심으로 진솔하게 써내려가길 원하셨다. 이런 글쓰기를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방식 덕분에 내가 배운 것을 내 삶 속에서 진짜로 받아들이고, 자기화할 수 있었다.

‘공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에서 멈추지 않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지금 내 삶의 모습은 어떤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게 되었다. 매주 작성한 소감문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와 내 삶을 바라보는 렌즈였고, 『논어』를 통해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기록이었다.

교수님의 철학 덕분에 나는 철학적 사유가 일상의 감각으로 스며드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 수업은 내가 직접 살아본 듯한 인문학, 내 이야기로 이어진 고전이 되었다.

또한 교수님은 철학적 질문을 통해 사고력을 키우는 것을 중요시하셨다. 이는 AI 시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인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 꼭 필요한 방식이었다. 직접 토론하지 않더라도, 교수님의 질문은 우리를 사유하게 만들었고, 매주 제출하는 소감문은 그 사유의 결과였다.

수업은 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동시에 온라인 강의가 병행되어 있었다. 온라인 강의는 예습과 복습, 그리고 심화 학습을 가능하게 했으며, 덕분에 자율적이고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배움의 형식뿐 아니라, 그 내용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다.

## 5. 이 수업을 모두에게 추천하는 이유

『논어 다시 읽기』는 단지 고전을 배우는 수업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마주보게 하고, 나를 더 깊이 이해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불안하고 방향하는 청년들에게 이 수업은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나처럼 스스로를 잃어버렸던 누군가가 있다면, 이 강의를 통해 다시 자신을 마주하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철학은 먼 이야기가 아니며, 고전은 삶과 맞닿아 있다. 『논어 다시 읽기』는 그 사실을 증명한 수업이었다. 특히 학문의 깊이, 실천적 연결성, 따뜻한 교수자의 태도까지 삼박자를 갖춘 이 강의는 단연코 우수 강의로 손꼽을 만하다.

무엇보다 이 수업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에 대한 물음과 응답을 주는 배움의 장이었다. 학문의 깊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동,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강의는 흔치 않다. 나는 삶의 이정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이 강의를 추천한다.

이 수업은 내 청춘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삶도 바꿔놓을 차례다.



# 마음에 다가갈 첫걸음, 심리검사 강의를 듣고

학과 상담심리학과

이름 윤수화

과목 심리검사

정구철 교수

상담심리학과에 진학한 이후, 나는 훌륭한 상담사를 꿈꾸며 심리와 사람에 대해 열심히 공부해왔다. 그러나 상담이라는 과정은 여전히 어렵게만 느껴졌고,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잘 파악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해왔다. 나는 줄곧 '사람의 마음은 직접 마주해야만 알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심리검사'라는 과목을 처음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 들었다. 사람의 심리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마음을 그렇게 단순하게 재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의를 처음 듣는 날, 교수님께서 하신 한마디가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다.

"심리검사는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심리평가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인 정보원이기 때문이죠."

심리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의심하던 내게, 확신에 찬 그 말은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사람의 마음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며, 심리검사 또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처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렇게 '심리검사' 강의는 내게 단순한 전공 수업을 넘어, 내가 심리학을 바라보는 관점을 올바르게 세워준 강의가 되었다.

강의는 심리검사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하여, 심리검사의 특성, 절차, 다양한 검사의 유형 등 핵심적인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기 중반까지는 이론 위주의 수업으로 심리검사의 기본적인 구조와 체계를 배우며 기초를 다졌고, 학기 중반 이후부터는 다양한 심리검사들을 직접 실습하면서 배울 수 있어 수업이 더욱 생동감 있게 느껴졌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은 지능검사 실습이었다. 교수님께서서는 지능검사에 대해 배우기 전, 마지막으로 지능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수업 전에 직접 지능검사를 받아오라고 하셨다. 그 과제를 받은 날, 나는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들었다. 심리검사를 배우며 점점 내담자로서 받을 수 있는 심리검사는 줄어가지만, 검사자로서 해석할 수 있는 심리검사가 늘어난다는 사실이 마치 내가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이후 수업 시간에는 내가 받은 지능검사 결과지를 보며 직접 해석하는 법을 배웠는데, 처음에는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던 숫자와 수치들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고, 이론으로만 배웠던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어서 이해도 훨씬 깊어졌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검사자가 되어 동기와 함께 지능검사를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직 많이 서툴고 어설퍼지만, 이전에 지능검사를 받은 기억을 떠올리며 조금 더 수월하게 실습을 진행할 수 있었다. 교수님은 아직 미숙한 학생들을 격려해주시며, 검사를 할 때는 검사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의 반응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검사를 잘한다는 것은 단지 절차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여러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고 파악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망설임의 순간, 종이에 그려나가는 선의 굵기, 하물며 의자에 앉는 모습조차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을 배우며, 다시 한 번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의 무게를 실감했다.

이 수업을 통해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심리검사는 단순히 숫자만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수님께서서는 매번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절대 검사 하나만으로 내담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고, 그 말

쓴 수업이 끝난 지금까지도 생생히 머릿속에 남아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일부만 보고도 그 사람을 다 안 것처럼 군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큰 착각이다. 마찬가지로, 검사 몇 줄로 그 사람의 전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 사람의 마음은 결코 단면적인 해석으로 파악될 수 없다. 다양한 심리검사들을 포함해 면담, 행동 관찰 등 종합적인 심리평가가 이루어져야 내담자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기에 상담사는 늘 겸손한 자세로 내담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정답이 없는 문제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답을 고민해나가는 것이란 걸, 이제는 그 당연하지만 쉽지 않은 마음가짐을 조금은 알 것 같다.

또한 기억에 남는 건, 교수님께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전문성 없는 검사나, 방송에서 특정 검사 하나만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셨던 부분이다. 심리검사를 배우기 전, 나도 그런 부분들을 접해보긴 했지만 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넘어갔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나도 심리검사를 배우며 심리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고, 교수님의 우려가 마음 깊이 공감되었다. 심리검사는 결코 대중에게 재미를 주는 오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관찰 불가능한 개념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예민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누군가를 왜곡하고 상처를 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상담사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나의 책임을 잘 이해하고 심리검사를 포함한 심리적 개념이 우리 삶에 올바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수업을 다른 학생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단순한 수업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심리학을 공부하고, 직접 많은 경험과 연구를 하셨던 교수님의 철학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수업은 심리검사라는 도구를 통해 내담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묻는다. 나는 그 과정 속에서 심리검사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검사자로서 지녀야 할 자세와 태도를 함께 배울 수 있었다. 이는 다양한 심리검사를 실습해보며 직접 그 태도를 실현해보므로써 더욱 확실히 정립할 수 있었다. 이는 상담사를 꿈꾸는 내게 아주 소중한 가치 있는 경험이 되었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솔직히 숫자가 가득한 딱딱한 내용만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수업을 들을수록 오히려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는 법'을 배워갔다. 또 검사지를 넘기며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고, 검사를 배울수록 '내담자'가 아닌, '검사자'의 위치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내가 떠올랐다. 그러다 보니 가장 재미없을 것만 같았던 심리검사 수업이 어느새 가장 기다려지는 수업이 되었다. 그러한 변화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내가 이 수업을 통해 어떤 상담사가 되고 싶은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상담사라는 길이 막막하게만 느껴지던 예전과는 달리, 이 수업을 들으며 나의 진로를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이 강의를 통해 매주 성장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만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이번 학기에 심리검사라는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내게 큰 행운이었다.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태도가 왜 중요한지를 처음으로 고민해 볼 수 있었다. 이 강의는 앞으로 상담사의 길을 걸어갈 내게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수업을 마친 지금, 나는 더 나은 상담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심리검사는 내게 단순한 전공과목이 아니라, 생각과 태도를 바꾸게 만든 전환점이었다.

그렇기에 나는 상담심리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고민해본 적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강의를 꼭 추천하고 싶다. 앞서 말했듯, 이 강의는 단순히 검사 도구를 익히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남을 판단하고, 또 얼마나 자주 단편적인 시선으로 사람을 해석해왔는지를 돌아보게 만든다. 이러한 배움은 스스로에게 있어서 타인을 더 깊이 있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이는 다른 강의에서는 배울 수 없는, 오직 심리검사 강의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이다.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든, 혹은 어떤 사람이 되든 한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는 분명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 수업에서 배운 것들은 오래도록 나의 기준이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학부생이 개발하는 신약

---

학과 약학과	이름 이은빛	과목 신약개발방법론	김상범 교수
--------	--------	------------	--------

---

약학과에서의 3년을 마치고 4학년으로 진급하면서 동기들과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주제는 올해 배우는 과목 중 제일 어려운 과목은 무엇일지 예상하는 것이었다. 본격적으로 약물에 대해 공부하는 약리학, 약을 제조하는 방법을 배우는 약제학 등 중요 과목들이 정말 많은 학년이기때 다들 의견이 분분했지만, 그중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공 선택 과목인 '신약개발방법론'은 생각보다 높은 난이도를 보이며 모두를 당황시켰다. 그러나 한 학기가 마무리된 지금 되돌아보면, 강의로 배운 전공 지식 못지않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준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어 우수 강의로 추천하게 되었다.

1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기본적인 신약의 개발, 연구, 허가 과정에 대해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거나, 현직에 계신 제약회사 직원분들을 초빙하여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 현장에 계신 약사 선배님들께서 본인이 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앞으로 제약 산업의 비전과 학생들이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시는 약 4주간의 특강은 제약회사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대학 교재에서는 배울 수 없지만 최근에 놓칠 수 없는 흐름인 AI를 약업계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현직에 계신 분들과 의견을 직접 나누면서, 제약회사를 꿈꾸지 않더라도 미래의 약업계 종사자로서 고민해 봐야 할 점까지 짚고 넘어갈 수 있었다.

신약의 개발 과정은 특강이 아닌 교수님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신약은 후보물질 발굴에서부터 시작한다. 약물로 발전이 가능한 후보물질을 lead compound라고 부르며, 이를 발견한 후에는 체내에서 분해되는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더 효과적으로 목표 조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화학 구조를 수정한다. 이렇게 수정된 물질을 동물에게 투여하여 약물로서의 유효성과 독성을 평가하는 비임상시험을 거친 후에, 건강한 사람과 해당 질병을 실제로 갖고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여 안전성을 평가하는 3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치게 되고,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국가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약물이 출시되게 된다. 강의를 통해 각 단계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던 이유는, 바로 학생들이 중간고사 이후에 9주차부터 13주차까지 팀을 이루어 신약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당연하다 생각하고 들었던 내용이었음에도 실제 적용을 해보려 하니 정말 고려할 사항이 많아서 교수님의 강의 자료를 많이 참고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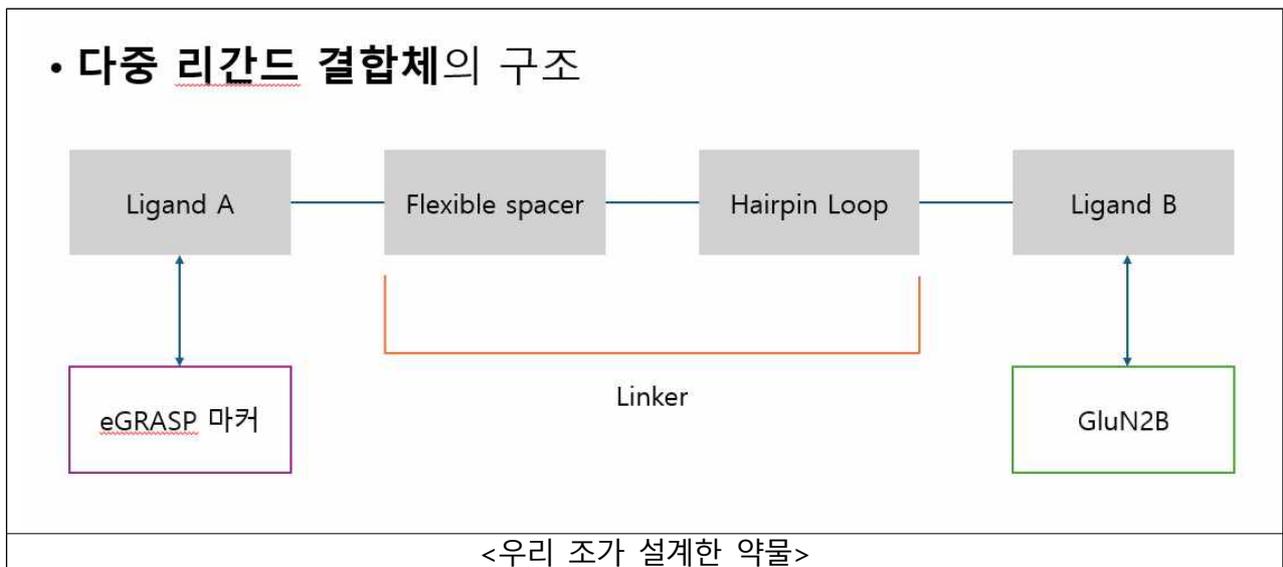
조가 짜여진 이후에는 가장 먼저 타깃 질환 선정과 시장 조사를 진행했다. 시장이 확보되어 있으면서 아직 신약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은 수없이 많았지만, 우리 조는 PTSD 치료제를 개발해 보자는 의견이 모여 이를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PTSD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았다. 첫 번째로, PTSD가 발생하는 기전이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이를 막을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인 만큼 뇌를 목표 조직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뇌에는 아무 물질이나 통과할 수 없게끔 BBB라는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BBB를 통과시키는 약물을 개발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뇌에 작용하여 PTSD에 대한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했다. 공포 기억으로 인한 정신 장애를 없애고자 하다가 정상적인 기억까지 억제한다면 약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을 모두 고려하여 약물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에, 지금까지 배운 생화학이나 바이오의약품학과 관련된 지식이 정말 많이 필요했다.

아무리 3학년과 4학년 초반에 배운 지식을 활용한다고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는 바로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교수님께서서는 조별로 회의 시간을 1시간 가진 후에 돌아가면서 5분 정도 요약 발표를 하도록 시간을 내어 주셨고, 발표가 끝나면 해당 조가 발표한 내용 중 더 깊게 고려하면 좋을 점이나

실현 불가능할 수 있는 점들을 설명해 주시며, 다음 시간까지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 사실 학생 수준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을 교수님께서 함께 고민해 주셔서 매주 한 단계씩 개선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교수님의 도움을 받은 후에는 다시 생화학 교재와 이전 강의 자료들을 펼쳐 보며 내가 개발할 치료제에 도입할 수 있는 개념이나 투여 방식을 하나씩 결정해 나갔다. PTSD 발생 기전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공포 기억으로 형성된 전전두엽의 신경세포 시냅스(신경세포 간의 연결)가 과도하게 활성화될 때 고통을 호소하는 질환이므로, 이 시냅스를 끊어내거나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었다. 또, 마침 공포 기억을 갖고 있는 신경세포를 시각화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기에 이를 활용하여 뇌의 공포 기억 영역으로 약물을 이동시키도록 설계하였다. 공포 기억 영역으로 이동한 약물은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도록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시냅스의 연결은 곧 새로운 기억의 형성이므로 공포 기억을 천천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BBB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약물을 감싸는 리포좀(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약물 포장)에 특정 작용기를 달아 뇌로 약물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나씩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때마다 정말 뿌듯했고, 약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현실화 불가능한 점들을 해결해 나갈 때마다 그와 관련된 생화학 지식이 완전히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팀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는 정말 힘들고 시간이 많이 뺏기는 과제라는 생각에 불평도 조금 하긴 했지만, 발표를 마무리한 후에 되돌아보니 강의와 시험을 통해 성장한 지식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성장을 이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외에도 다른 조가 개발한 약물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그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이 과목의 흥미로운 점 중 하나였다. 내가 개발하는 약물뿐 아니라 총 10개 조가 고민한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학부생인 내가 어떻게 신약을 디자인할 수 있을까? 싶었던 불안감은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해소되었고, 이번 과제를 수행하며 여러 방면에서 성장할 수 있었기에 해당 수업을 우수 강의로 추천한다.



■	바이오 의약품학*	전공필수	3	4.0	91.41	A
	신약개발방법론*	전공선택	2	4.5	100	A+

<신약개발방법론 성적>

# 강의 그 이상의 가치

학과 **간호학과**

이름 **정예원**

과목 **사고와 표현**

**한금윤** 교수

“사고와 표현”이라는 강의는 신입생 OT에서 선배님들이 좋은 강의를 추천해주시는 자리에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기가 많았던 강의인 만큼 첫 수업을 기대하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총 3시간의 수업으로 한 시간은 온라인으로, 두 시간은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이론 위주의 내용으로 문단과 문장의 기본 개념, 창의적/추론적 사고 등의 개념 및 방법, 사고의 논리적 오류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니다.

처음에는 토론이나 발표 위주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 방법, 내용을 요약하는 법,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법 등 개인의 사고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 강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강의는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 수업은 수강 후 댓글에 느낀 점을 작성하여 배운 내용을 복기하고 정리할 수 있어 타 강의와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직접 글로 작성하니 기억에도 오래 남고, 대면 수업에서 앞서 배운 내용과 연계해 이해할 수 있어 공부하기에도 수월했습니다.

평소 책을 읽은 후에 기억에 남지 않아 내용 이해에 부족함이 있었으나 수업을 통해 문단을 나누어 흐름을 파악하고 요약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큰 챕터별로 느낀 점을 적고 자기 말로 바꾸어 해석하는 등 독서 방식의 개선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면 수업에서는 특정 논문이나 뉴스의 일부를 발췌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찾아 한 문단으로 요약한 뒤 팀별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발표자와 이의를 제기하는 토론자의 기본 예의에 대해 배우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이를 바로 토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셔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과제로는 한 문단 요약, 자기 시 쓰기, 자기소개서 및 자기 성찰적 글쓰기, 자유 주제로 발표하기 등 자신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스스로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과제 두 가지를 소개하자면 첫째, 자기 소개서 쓰기는 회사 취업, 동아리 가입 등 훗날 원하는 곳에 지원할 때 활용하기에 유용하다고 생각해 가장 좋았습니다. 글쓰기 초반에는 간절하게 원하는 곳에 실제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와닿지 않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피드백을 주시며 방향을 잡아주시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어려웠던 부분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 동기에 관한 내용을 작성할 때 해당 기관이나 조직을 알게 된 경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기대되는 활동과 배우고 싶은 내용을 함께 적으면 좋다는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마무리 부분에서는 자신의 강점과 연결하여 해당 장소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과 진실성을 연결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다듬어주셨습니다.

단순히 글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고 교수님과 일대일로 배우는 것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거의 강의실을 떠난 후에 남아서 질문하는데도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교수님의 모습은 학생들을 향한 진심이 느껴져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직접적인 피드백으로 글을 작성할 때 새로운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어 좋았고, 여러 글쓰기 활동을 통해 맞춤법이 글의 전문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세심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상 깊었던 내용은 자유 주제로 발표하기 활동입니다. 정해진 틀의 주제와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닌, 본인이 흥미를 느끼거나 다루고 싶었던 주제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는 것이 진실성 있고 보람 있는 발표라고 느꼈습니다. 이 또한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주셨는데, 점수만 적으시는 게 아니라 좋은 점과



# Bonjour, la ami!

학과 유아교육과

이름 신주민

과목 초급 프랑스어

김진수 교수

대학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3학년을 맞이하면서, 나는 버킷리스트를 실행하고자 결심하였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 적은 수많은 버킷리스트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외국어 배우기였다. 그 당시에는 막연히 멋있어 보여서 적어보았던 것이었으며,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계속 미루기만 하였다. 회피하던 중에 다시 마음을 잡고 도전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유는 지난 방학 유럽 여행에서의 경험 때문이었다. 작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려다가 결국 손짓발짓으로 겨우 의사소통을 했던 그 순간의 아쉬움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었다. 현지인들과 그들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싶다는 갈망이 점점 커져갔다. 두 번째는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진로와 관련되지 않는 영역에 발을 들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대학생 때 새로운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여유로울 것 같다는 욕심이었다.

바로 학원을 다니거나 학습지를 통한 독학은 부담스러웠기에, 정규학기 중 김진수 교수님의 '초급프랑스어1'을 수강하였다. 프랑스어에 대해서는 '봉주르' 정도만 알고 있던 문외한인 나는 첫 수업 때의 떨림과 설렘을 아직까지 잊지 못한다.

김진수 교수님의 초급프랑스어1 강의는 나의 배움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값진 경험을 선사해 주었다. 결과적으로, 이 도전은 내게 큰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것 같다. 본 글에서는 한 학기 동안 경험한 이 강의의 특징과 의미를 정리하여 다른 학우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표면적으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수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현재 본인은 교육공학에 관한 교직 수업을 수강하였는데, 김진수 교수님께서 내가 배운 교육공학적으로 검증된 교수법을 실제 수업에서 창의적으로 활용하신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반복 연습형 교수법을 기반으로 한 수업 진행은 언어 학습의 핵심 원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프랑스어의 기본 동사인 être(존재 동사)와 avoir(소유 동사)에 대한 교수 방식이었다. 프랑스어를 배울 땐 이 두 동사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수님께서 학기 초반에 이를 체계적으로 소개한 후 학기가 끝날 때까지 매 수업마다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제시해 주셨다. 처음에는 반복되는 내용과 스피치에 지루하기도 하였지만, 학기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반복 학습의 효과를 명확히 체감할 수 있었다. 1~3군 동사 활용이 자연스럽게 입에 붙고, 문장 구성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더욱 만족한 점은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을 통합한 접근법이었다. 매 수업 시작 후 5~10분간 제시되는 프랑스 문화 관련 시청각 자료는 대중적인 것도, 마이너한 것도 섞여 있었다. 이 자료들 덕분에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언어가 쓰이는 문화까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다. 프랑스 영화의 한 장면, 상송, 그리고 일상생활을 담은 다큐멘터리 클립 등을 통해 프랑스어가 단순한 언어 체계가 아니라 공유되고 전승되는 문화를 몸소 느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명사의 성별을 설명하시던 방식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단순히 "남성 명사에는 le, 여성 명사에는

la를 붙인다"고 기계적으로 암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법적 특성이 프랑스 문화와 사고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설명해 주셨다. 이를 통해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었다.

회화 연습 시간 역시 세심하게 설계된 교육 활동이었다. 새로운 외국어를 구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부끄러웠던 우리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계셨던 교수님께서서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해 주시면서도, 발음이나 문법적 오류를 즉시 교정해 주셨다. 이러한 균형 잡힌 지도 방식 덕분에 학생들은 점차 자신감을 갖고 프랑스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면적 측면으로는, 주관적이지만 개인의 비약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 학기의 학습을 마치고 돌아보니, 내게 나타난 변화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의미 있었다. 가장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변화는 언어 능력의 향상이었다. 학기 초에는 알파벳 읽기도 버거워했던 내가 학기 말에는 간단한 자기소개를 프랑스로 할 수 있게 되었다. "Je m'appelle Joo-min", "Je suis Coréenne"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더욱 재밌었던 것은 프랑스로에 대한 감각이 생겼다는 점이었다.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프랑스 유학생들의 릴스를 자주 보는데, 예전에는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 소리만으로 들었던 것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상황적 맥락과 감정적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단어를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을 표현한 건지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나의 작은 변화들이 프랑스로의 매력을 더 돋보이게 했다.

하지만 이 과정이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정말로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경험이었다. 분명히 어제 완벽하게 외웠던 단어가 오늘은 기억나지 않을 때의 답답함, 발음이 도무지 따라 하기 어려울 때의 좌절감, 복잡한 문법 규칙 앞에서 느끼는 혼란스러움, 완벽한 구조를 구사했을 때의 기쁨 등을 수없이 반복했다.

특히 동사 활용이 가장 어려웠다. 한국어는 동사가 주어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는데, 프랑스로는 je, tu, il/elle, nous, vous, ils/elles에 따라 모두 다른 형태로 변화한다.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 복잡하고 비논리적으로 느껴져서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교수님의 인내심 있는 반복 교육과 지속적인 격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 결과,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는 단순히 프랑스로 실력뿐만 아니라 인내심과 끈기,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을 기를 수 있었다. 언어 학습이 단순한 기능 습득이 아니라 개인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강의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열매는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확장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의사소통 도구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고체계와 문화적 관점을 경험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프랑스로를 배우면서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프랑스로인들의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 예술과 문화를 중시하는 가치관, 토론과 대화를 즐기는 문화적 전통 등에 대해 알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문화적 편견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다.

또한 언어 자체가 가진 독특한 특성들을 통해 다른 방식의 사고를 경험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로에서는 모든 명사에 성별이 있다는 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이런 언어적 특성이 세상을 범주화하고 인식하는 또 다른 방식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깨달음은 단순히 프랑스로나 프랑스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인정하는 '이해의 시각'이 더 넓혀진 것이 아닐까 싶다.

무엇보다도 이런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어 같은 다른 로망스어족 언어들에도 관심이 생겼고, 더 나아가서는 프랑스어 관련 어학 자격증에 대해서 도전해 보고자 하는, 소위 말하는 꼬꼬무가 이루어진 것이다.

정리하자면, 나는 배움으로써 오는 희로애락이 있다고 생각한다. 잘 익혀지지 않는 것에서 화가 나고 슬프기도 하지만, 계속 학습을 진행하다 보면 마침내 기쁨이 찾아온다고 믿는다. 언어도 마찬가지다. 다른 학생들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그것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세계 다양한 문화에 눈을 뜨며 세계를 향한 관점이 확장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추천한다.

새로운 언어는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문이다. 그리고 김진수 교수님의 초급프랑스어1 강의는 그 문을 열기까지의 도움을 주는 것은 타당한 사실이다. 대학 생활 중 언제든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학우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강의를 선택하기를 진심으로 권하고 싶다.



# 전공을 직접 요리하다

학과 **식품영양학과**

이름 **김채영**

과목 **식품관리**

**황효정** 교수

2025년 1학기 내가 꼽은 우수 강의는 '식생활관리 및 실습'이다. 식품영양학과에서 다양한 실습 수업을 경험해보았지만, 그중에서 '식생활관리 및 실습' 수업은 특히 기억에 오래 남고 의미가 있었던 수업이다. 식품영양학과와 대부분 실습 수업이 실험이나 조리 실습 위주로 진행되는 반면, 이 수업은 사람들의 식생활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전 과정을 내가 직접 경험해볼 수 있었던, 매우 실무 중심의 수업이었다.

이 수업은 크게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중간고사 전까지는 이론 중심으로, 사람들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배웠다. 식생활은 단순히 먹는 행위를 넘어 개인의 건강, 습관, 환경, 심리 등 다양한 요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론 수업을 통해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저학년 때 배웠던 단체급식, 조리 원리, 식품학 등의 기초 지식들을 복습하게 되었고, 실습에서 이 지식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이론을 먼저 배우고 곧바로 실습에 들어가는 수업 구성은 배운 내용을 현장에 바로 적용해볼 수 있어 도움이 되었고, 막막하지 않게 잘 풀어나갈 수 있었다.

실습은 팀을 이루어 진행되었고, 우리 팀은 먼저 대상자를 정하는 과정부터 시작했다. 우리가 선정한 대상자는 자취를 하며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20대 여성이었다. 팀원들 각자가 주변에 있는 대상자 후보들을 직접 인터뷰했고, 그중에서 하나를 선정한 뒤 본격적인 식생활 분석에 들어갔다. 24시간 회상법과 식품섭취빈도표를 이용해 대상자가 일주일 동안 섭취한 식사를 꼼꼼하게 기록했고, 이후에는 전문가용 영양 평가 프로그램인 '캔프로(Can-Pro)'를 활용해 영양소 분석을 실시했다. 이 과정을 통해 에너지 섭취량은 물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소 섭취량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대상자에게 부족하거나 과잉된 영양소가 무엇인지 명확히 분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영양사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식생활을 관리하고 조언하는지 실무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었고,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접해보며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점이 매우 유익했다.

그다음에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건강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맞춤 식단을 직접 구성했다. 단순히 균형 잡힌 식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재료와 조리법을 고민했고, 팀원들과 함께 직접 장을 보고, 조리 계획을 세운 뒤 실제 음식을 만들어 제공했다. 이후에는 서로의 음식을 시식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다른 조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꼼꼼히 기록했다. 이처럼 계획-실행-피드백의 전 과정을 실습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또한 이 수업은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1차 실습과 2차 실습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였다. 1차 실습에서는 식단을 구성하고 조리하여 피드백을 받았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2차 실습에서는 개선된 식단과 조리 방법을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대상자의 기호와 생활 패턴을 더욱 섬세하게 반영하려 노력했고, 그 결과 1차 실습에서는 3등이었지만 2차 실습에서는 1등을 차지하며 최종 실습 점수 1위를 기록하게 되었다. 단순한 성적을 떠나 팀원들과의 소통과 협업,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눈에 보이는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뿌듯했다.

이처럼 식생활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실천 가능한 식단으로 발전시키며, 대상자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는 전 과정은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실습 수업의 틀을 완전히 깨주었다.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위한 식단'을 직접 짜고, 그 식단을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 과정이 있어서 좋았다. 기존의 수업들이 '식단 짜기' 혹은 '조리 실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수업은 한 사람의 식습관 개선을 통해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수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번 수업을 통해 나는 영양사라는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막연했던 진로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 있었다. 실제로 내가 영양사 실습을 나갔을 때는 이처럼 대상자를 위한 맞춤 식단 설계나 상담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수업을 통해 실제 영양사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시간이 되었다. 실제로 우리가 팀 활동을 통해 식단을 구성하고 조리했을 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고민, 분석이 필요했고, 그만큼 대상자에게 잘 맞는 식단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섬세한 과정인지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를 위해 식단을 만드는 일은 삶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누군가의 건강 개선을 위해 식단을 짠다는 일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멋진 일이라는 것을 이번 수업을 통해 깨달았다.

그 과정에서 나 역시 '영양사는 정말 공들여 식단을 짜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먹고, 남기기까지 했던 과거의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다. 특히 피드백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 만든 음식이 남았을 때는 솔직히 마음이 좋지 않았고, 피드백을 좋지 않게 받았을 때는 속상하기도 했다. 그 경험 덕분에 앞으로는 학식이나 급식을 먹을 때에도 '이 식단에는 분명 이유가 있고, 누군가는 정말 고민하며 만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먹는 음식에 좀 더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가능하면 남기지 않고 다 먹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 수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첫째,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이다. 실제 영양사가 사용하는 전문적인 앱 '캔프로'를 활용한 식단 작성을 구성해볼 수 있다. 또, 식단 계획부터 재료 구매, 조리, 피드백 등 모든 일련의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실천 대비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둘째,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이다. 팀 기반 활동이다 보니 협업 능력과 소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셋째, 진로 탐색이다. 영양사라는 직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진로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 넷째, 자기 성찰이다. 여태껏 음식에 대한 나의 태도를 되돌아보고, 맛이 없으면 먹지 않았던 나의 식습관을 반성할 수 있다. 다섯째, 피드백 기반의 수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결과를 제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1차 실습 이후 피드백을 통해 2차 실습에서 놓쳤던 부분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피드백을 통해 내가 놓쳤던 부분을 돌아볼 수 있었고, 단순한 평가가 아닌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 수업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피드백을 자산으로 삼아 발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이는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

개인적으로는 이 수업처럼 실습 중심의 수업이 4학년뿐 아니라 좀 더 낮은 학년부터 점진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진로에 대한 감을 좀 더 일찍부터 잡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수업이 많아진다면, 나처럼 실무형 역량을 미리 체험하고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학생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식생활관리 및 실습' 수업은 단순한 학문적 이해를 넘어, 내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볼 수 있었던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다. 이 수업 덕분에 나는 누군가의 식생활을 책임지고 개선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해 갈 수 있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학과 수업 중 가장 실질적이고 현장감 넘치는 강의였다고 생각한다.

#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의 힘’

학과 사회복지학과

이름 정고은

과목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윤재영 교수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1학기 동안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PT 발표를 통해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설득하는 과정을 담은 수업이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로 판단되어야 하며, 특정한 목적을 지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논리적인 구조는 ‘시스템’이라 일컬으며, 투입-과정-산출-변화의 순서로 구성된다. 이때 ‘투입’은 인적·물적 자원이 얼마나 투입되는지를, ‘과정’은 개발한 프로그램의 ‘활동’을, ‘산출’은 참여자가 수치적으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마지막으로 ‘변화’는 앞서 언급한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투입-과정-산출-변화’의 순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수업에서 특히 강조된 점은 사회복지사의 책무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책무성이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중심적으로 기획되었는가 여부이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했는가, 수혜자가 단순한 실적 수치로 전락하지 않고 진정한 참여자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Social work (사회복지 실천)’가 아닌 단순한 ‘Care work(돌봄 노동)’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 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참여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체계적인 개입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신체적·정서적 돌봄 중심의 단순한 활동이 아닌,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량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자질로 평가된다. 클라이언트 중심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개발 이전 단계에서 전문 지식을 활용해 클라이언트가 겪는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욕구 사정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 수업이 우수 강의로 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는, 실제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프로그램 ‘활동’을 먼저 정하고 나서 참여자의 욕구를 끼워 맞추는 식의 역행된 사고를 하게 되는데, 수업은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교정해준다. 나 또한 처음에는 활동을 중심으로 기획했지만, 수업을 통해 그 사고 방식을 전면 수정하게 되었다.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 프로그램이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깊이 고찰하게 되었다.

수많은 고심 끝에 내가 실제로 겪었던 어려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체감한 경험 중 하나는 ChatGPT였다. 공부 중 어려운 부분을 질문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과제를 보완할 수 있었고, 논문을 요약받는 등 대학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다 문득 실제 생활에서는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떠올렸고, 대표적인 예시로 키오스크가 생각났다. 처음에는 나 역시도 디지털 기기인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웠지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해 나갔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 이러한 디지털 기기 적응이 쉽지 않다. 예컨대 야구 경기 티켓은 인터넷 사전 예매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 예매가 어려워, 많은 노인이 문화생활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 디지털 소외’라 불린다.

노인의 디지털 소외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0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 등에 대해 노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이는 노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이 기본 소양이 되어버린 시대에, 노인의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하게 되었다. 관련 논문을 찾아본 결과, 65세 이하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91.8%인데 반해, 65세 이상은 25.3%에 불과했다. 이는 스마트폰 보급률의 현격한 차이를 의미하며, 곧 스마트폰 활용에 어려움을 주는 핵심 요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2021년 서울시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약 180만 명 중 약 60만 명이 정보 격차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또,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노인은 디지털 기기 사용 기회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가족 내에서 살아가는 노인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있어 도움 받을 기회가 더 많은 셈이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나는 스마트폰 기기 이용이 적은 노인을 대상으로 청년 자원봉사자와 짝을 이루어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진행하고, 스마트폰을 임대하여 제공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을 사회적 관계망 속에 두고, 지지와 연대의 경험을 제공하며, 디지털 소외로 인한 우울감과 고독감을 줄이는 것을 성과 목표로 설정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이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요소는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었다. 기획 가설과 평가 계획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다. 즉, 이 두 요소의 균형이야말로 실무적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임을 배울 수 있었다.

이 수업을 통해 나는 사회적 문제를 단순한 '지식'으로만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함으로써,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실천력을 기를 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단순한 명제적 지식을 넘어선 '암묵적 지식'의 습득이었다.

또한 수업 방식 역시 매우 인상 깊었다. '하브루타 수업 방식'은 수업 내내 한 명의 팀원과 짝을 이루어 질문하고 토론하며, 계획서의 빈약함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형식이었다. 이 수업은 단발성 팀 활동이 아닌, 한 학기 내내 파트너와 협력하는 구조였기에 수업에 참여하려면 미리 협의하고 준비해와야 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협업은 단순한 팀 활동 이상의 배움으로 연결되었다. 하브루타 방식은 나의 사고를 확장시켜 주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부분을 팀원의 의견을 통해 재고하게 되고, 서로의 질문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도 향상되었다.

교수님의 수업 진행 방식 또한 특이했다. 학생의 질문에 대해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질문을 던져 주도적인 탐구를 유도하셨고, 수업의 마지막 차시에는 우리가 아닌 다른 조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설득당하는 입장'에서 평가해보는 시간도 마련해주셨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타인의 시각도 수용하는 태도를 함께 길러나갈 수 있었다.

# Classic is not boring

학과 인공지능공학

이름 서정빈

과목 클래식 음악과 여행

Alexander Park 교수

‘클래식 음악과 여행’. 한 학기를 시작하며 마주한 이 강의 제목은 제게 막연한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아마도 쇼팽의 음악을 들으며 폴란드의 가을을 상상하고, 모차르트의 선율과 함께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거리를 거니는, 그런 낭만적인 풍경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클래식은 그저 특정 장소의 ‘배경 음악’이 되어주는, 여행의 감흥을 돋우는 양념 같은 것이라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내디딘 이 한 학기의 여정은 제 손에 들려 있던 낡은 지도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여행의 배경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를 미지의 시공간으로 데려다주는 가장 완벽한 여행의 ‘수단’이자 ‘목적지’였습니다.

모든 여행의 시작은 지도와 나침반을 익히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강의 초반, 우리는 비발디의 베네치아에서 여행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붉은 머리의 사제’가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성당에서 연주했던 음악은 단순히 아름다운 선율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네치아의 축축한 안개와 반짝이는 운하, 활기찬 시장의 소음과 귀족들의 화려한 가면무도회를 담았던 한 폭의 음향적 풍경화였습니다. 특히 비발디가 <사계>의 악보에 직접 써넣은 소네트는, 우리에게 ‘표제음악(Program Music)’이라는 아주 상세한 여행 가이드북을 선물했습니다. “얼어붙을 듯이 차가운 겨울 산과 들은 눈으로 뒤덮이고...”라는 안내문을 따라 ‘겨울’ 1악장을 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강의실의 학생이 아니라 세찬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여행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저는 ‘표제음악’과 ‘절대음악’의 차이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표제음악이 명확한 목적지와 일정이 정해진 패키지여행이라면, 절대음악은 목적지 없이 발길 닿는 대로 떠나는 자유여행과 같았습니다. 또한 바로크 시대의 ‘감정 이론(Affektenlehre)’은 음악이 어떻게 분노, 기쁨, 슬픔과 같은 인간의 내면을 탐험하는 여행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작곡가의 의도와 감정의 풍경 속으로 향해하는 법, 즉 음악 지도를 읽고 감정의 나침반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론이라는 지도와 나침반을 손에 쥔 채, 저는 중간과제를 위해 첫 번째 실전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고대 이집트’. <2025 서울시향 퇴근길 콘서트: 고대 이집트, 음악으로 깨어나다>는 제게 잊을 수 없는 시공간 여행을 선물했습니다. 여행의 시작을 알린 것은 존 윌리엄스의 <인디애나 존스> 중 ‘레이더의 행진곡’이었습니다. 웅장한 금관악기의 포효는 마치 타임머신의 출항 신호처럼 들렸고, 저는 순식간에 현실을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곧이어 베르디의 <아이다> 중 ‘개신 행진곡’이 연주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마곡의 콘서트홀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대 테베의 시민이 되어, 승리하고 돌아오는 라다메스 장군의 군대를 향해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트럼펫의 팡파르는 파피루스에 기록된 승전보였고, 무대 뒤편에서 들려오는 아련한 트럼펫 소리는 원근감을 만들어내며 제 눈앞에 광활한 사막과 도시의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강의에서 배웠던 ‘표제음악’이 어떻게 청자를 특정 시공간으로 완벽하게 이동시키는지 온몸으로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행은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인물의 깊은 내면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가 울려 퍼졌을 때, 저는 독일어 가사를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프라노의 목소리가 뿜어내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초고음과 격렬한 스타카토는 그 어떤 언어보다도 명확하게 ‘밤의 여왕’의 불타는 분노와 복수심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바로크 시대의 ‘감정 이론’이 21세기의 콘서트홀에서 완벽하게 재현되는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속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가장 섬세한 가이드였습니다.

물론 모든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낯선 패턴의 반복 속에서 잠시 길을 잃고 졸음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조차 제게는 소중한 배움이었습니다. 모든 여행지가 내게 익숙하고 편안할 수는 없듯, 낯선 음악과의 만남 역시 여행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의 '이해하지 못함'은 제 음악적 편협함을 깨닫게 하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겸손함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지를 심어준 값진 '길 잃음'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음악 여행의 진정한 묘미는 '라이브'라는 현장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이어폰으로 듣는 음악이 잘 찍은 '여행 사진'이라면, 콘서트홀에서의 경험은 그 장소의 공기와 바람, 햇살과 냄새까지 온몸으로 느끼는 '실제 여행' 그 자체였습니다. 홀 전체를 감싸 안는 팀파니의 깊은 울림, 천장을 뚫을 듯 솟아오르는 바이올린의 고음은 제 가슴을 직접적으로 두드리는 물리적인 파동이었습니다. 콘서트홀의 건축 구조와 자재 하나하나가 거대한 악기가 되어 소리를 빛어내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지휘자의 손끝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연주자들의 모습,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들, 바이올리니스트의 활이 걱정적으로 현을 가르고 트럼피터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그 모든 디테일은 음악이라는 풍경을 구성하는 살아 있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박제된 악보가 아니라, 연주자들의 뜨거운 호흡을 통해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체와의 교감이었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현지인들의 살아 있는 표정과 몸짓이 그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듯, 연주자들의 열정은 음악 여행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같이 여행을 떠나 주셨던 어머니에게 감사했습니다.

한 학기의 여정이 끝나고, 저는 기말고사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20개의 낯선 악곡 목록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게 암기해야 할 시험 범위가 아니라, 제가 한 학기 동안 즐겁게 여행했던 20개의 도시와 풍경이 담긴 '여행 앨범'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지를 받아 드는 순간, 저는 비발디의 베네치아로, 모차르트의 오페라 극장으로, 베르디의 이집트로 다시 한번 즐거운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Alexander Park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은 제게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저의 첫 여행에 동행해 준 가장 훌륭한 '가이드'였습니다. 중간과제 보고서의 마지막에 저는 "Classic is definitely not boring."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가 끝난 지금, 저는 그 문장을 이렇게 수정하고 싶습니다. "Classic is a whole new world to travel."



# 그래서 우리의 처방약은,

학과 영어영문학과

이름 강하령

과목 타자성의 철학

노동욱 교수

“타자성의 철학”... 여러분은 이 강의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타자성? 철학?

저는 이 이름에서 ‘타자성과 철학이 서로 연관되어 있나?’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념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극단적인 갈등을 겪고 있기에,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타자성의 철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 두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고, 더욱 수강 신청 버튼을 누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다른 이들의 철학적 생각을 듣는 시간, 마지막으로 이 둘을 합친 ‘토의 시간’입니다.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은 수업을 듣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매주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책을 읽고 생각해 볼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스스로 “정말로 생각해 보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업에서는 교수님과 함께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자신이 책을 읽으며 느꼈던 점이나 교수님과 나눈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팀원들과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토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수업에서 팀원들과의 ‘토의’가 갖는 의미가 꽤 크다고 느꼈습니다. 철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텍스트만 보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신의 생각과 수업 내용을 정리해 “말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치며, 머릿속을 동등 떠다니던 추상적 관념들이 꽤나 구체적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업을 듣다 보면 교수님이 안내하신 과제나 질문에서 “타자성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라는 문장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학기 내내 타자성에 대해 배우지만, 막상 그 단어를 접하면 ‘도대체 타자성이 뭘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을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라는 혼란이 가득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생각에 빠져 여러 상상과 사고를 접목하고 해체해 보며, 나름의 방식으로 타자성에 대해 사유해 보았습니다.

타자성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단어는 ‘자성’이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자성’을 검색하면 “어떤 물질이 쇠붙이 따위를 끌어당기는 자기적인 성질”이라고 나옵니다. 그와 동시에 과학 실험 시간에 봤던 자석이 서로를 끌어당기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다음 눈에 들어온 단어는 ‘타자’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나 이외의 모든 존재들이 바로 타자가 아닐까요? 인간은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학습하고 성장하는 사회적 동물이며, 타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타자성을 ‘타자’와 ‘자성’으로 나누어 해석해 보았습니다. 자석이 자신과 다른 극을 가진 또 다른 자석을 끌어당기는 모습이, 마치 우리가 타자를 우리 삶 안으로 들여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소 ‘사회’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은유 작가의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책을 읽은 것이 계기였습니다. 책에는 “부모님, 선생님, 주변 어른, 티브이로부터 영향받은 말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가치관이 되고, 또 그게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인지 모르고 행하는 거죠.”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 문장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책을 읽기 전의 저는,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모든 결과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식이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를 보면 ‘노력을 안 했구나’라고 생각했고, 길에서 노숙자를 보면 ‘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했었죠. 하지만 이 문장을 통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른들의 말은 다 맞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이 가진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할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 저는 제 생각을 좀 더 확장하고 구체화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런 배움을 얻으려면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었죠. 그렇게 정처 없이 고민하던 중, “타자성의 철학” 수업을 처음 듣게 되었고, 그 순간 ‘오, 내가 찾던 게 이거였어!’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수업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사고의 힘, 즉 섬세한 정신”이었고, 이는 제가 중요하게 여겨왔던 “관심의 필요성”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 수업에 애착이 생겼고, 정말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열심히 사유하고, 그 사유를 바탕으로 교수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회 문제를 접할 때, 보다 건강한 시각과 사고를 가지게 된 것 같아 무척 보람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학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첫 수업 전에는 어렵고 생소한 과목을 신청한 것 같아 긴장했었죠. 그런데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 어려움보다는 즐거움이 훨씬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철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적 사고의 출발점은 ‘나 아닌 타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즉 타인을 향한 나의 시선을 되돌아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은 단순히 이론을 암기하며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기는 ‘나와 너’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잊고 지냈던 가치를 다시 떠올리는 여정이었지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거나 단정 지은 적은 없으신가요? 수업 이후의 저는, 누군가 혹은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한 발짝 물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더 섬세해졌고,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타인을 쉽게 배제하고, 차별하며, 갈등으로 얼룩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가져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 강의는,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께, 지금 당장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 깊이 사유할 여유를 주는 “타자성의 철학”을 처방합니다.

# 실습으로 살아난 이론, 자연스러운 몰입의 현장으로

학과 인공지능융합부

이름 송준언

과목 컴퓨터 네트워크

왕수현 교수

## 네트워크를 수강하다

암기 과목을 싫어하여 미루고 미뤘지만, 컴퓨터 네트워크는 언젠가 꼭 배워야 할 기초라고 생각해 어쩔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 실제 사례를 통해 보다 깊은 이해로

수업은 교수님이 직접 제작하신 강의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론 설명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휴대용 Wi-Fi, 공유기의 주파수 대역, 안테나의 의미, SSID와 보안 설정 등 실제 제품 스펙을 예로 들며 설명해주셨고, 과거 무선통신 분야에서 직접 연구하셨던 실험 내용까지 소개해주시며 이해도를 더욱 높여주셨습니다.

## 실습으로 IP 이해하기

첫 번째 실습 과제에서는 ipconfig /all, ping, tracert, nslookup 명령어를 사용해 학교와 집의 네트워크 상태를 비교하고, 공인/사설 IP, 게이트웨이, 서브넷 마스크, DHCP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IPv4 클래스 개념과 네트워크 설정의 실제 적용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arp -a 명령어를 통해 IP 주소와 MAC 주소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주소 변환 테이블과 패킷 흐름, TTL의 의미, DNS 질의 과정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 후반부에는 무선통신과 보안에 대한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2.4GHz와 5GHz 주파수의 차이를 비교하며 어떤 환경에서 어떤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실용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고, SSID 설정과 암호화 방식 등 무선 네트워크의 구조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파수 대역폭에 따른 데이터 전송 속도와 전파 특성에 대한 설명은 수업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 실습으로 자신감 쑥쑥

교수님은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수업 방식을 채택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고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수업을 통해 네트워크 환경을 실제로 어떻게 다루는지를 경험하며 실무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상상하게 되었고, 이는 자신감의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이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실습은 번거로운 것 같았지만, 오히려 흥미를 자극하며 실무 능력과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이론과 실사례로 보안 이해하기

보안 파트에서는 DoS, DDoS, 스니핑, 스푸핑, 스머핑, SYN 플러딩 등 다양한 공격 기법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패킷을 대량 전송해 서버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원리, 방화벽 및 탐지 시스템의 설정 방법 등 구체적인 대응 방식도 함께 익히며 추상적인 개념들이 명확해졌습니다. 교수님은 maver.com과 같은 유사 도메인을 이용한 피싱 사례, SKT 해킹 사건 등 현실 사례를 통해 수업 내용을 보완해주셨고, 이러한 예시들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리눅스 환경 경험하기

리눅스 기반의 파일 시스템 실습은 FTP 서버 구축 및 파일 전송 실습을 위한 기초 단계였습니다. VMware 환경에서 Ubuntu 리눅스를 활용해 mkdir, touch, nano, cp, mv 등의 명령어로 파일을 생성하고 편집하며 CLI 환경에 대한 자신감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파일 권한 설정, 경로 오류 처리 등 실습을 통해 네트워크와 시스템 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개발 환경에서 리눅스를 활용해 파일 압축 및 권한 설정을 다루며 이 수업의 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실제로 패킷을 주고받아보자

마지막 실습이었던 FTP 서버 구축과 알FTP를 활용한 파일 전송 실습은 수업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직접 서버를 설정하고 클라이언트를 통해 파일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며 네트워크 통신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Wireshark로 패킷을 분석하고 STOR, RETR, 226 Transfer complete, 550 Permission denied 등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경험은 네트워크 작동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중간고사: IP의 개념을 묻다

중간고사는 주로 OSI 7계층, TCP/IP, IP 주소, DNS, 서브넷 마스크 등 기본적인 이론 개념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단순 암기가 아닌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해야 했기 때문에, 평소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공인 IP와 사설 IP의 차이점, IP 주소에서 A, B, C 클래스 및 서브넷 마스크를 기반으로 실제 할당 가능한 IP 범위를 계산하는 연습을 반복했던 것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기말고사: 무선과 보안의 개념을 묻다

기말고사에서는 무선랜(WLAN)과 관련한 근거리 통신 개념이 중심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AP 포인트와 주파수 대역, 특히 2.4GHz와 5GHz의 차이점, 현대 이동통신에서 사용되는 셀룰러 기술, 보안과 관련된 DoS 및 DDoS, 그리고 대칭/비대칭 암호화 개념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다중 치환 암호화의 하나인 비즈네르 암호화를 직접 해본 경험이 기말고사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딱 한 번의 노력으로 A+

교수님께서서는 수업 중 핵심 내용을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다시 요약해주시고, 중요한 부분은 직접 문제를 풀어보게 하신 후, 함께 정답을 확인하고 해설해주셨습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도 병행되었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이론을 한 번만 다시 훑고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수업에서 반복해 들은 내용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 배움은 실전을 위해 존재한다

네트워크 수업에서 실습을 병행했던 덕분에 리눅스 환경에서 ping 명령어로 네트워크를 점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마침 다른 과목에서 웹 서버 배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로컬 환경과 서버 환경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등록된 도메인으로 접속했더니 사이트가 빈 화면으로 출력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 수업에서 배운 ping 명령어가 떠올라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점검했고, 프론트엔드가 잘못된 로컬 IP로 라우팅되고 있음을 파악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제 상황에 적용 가능한 지식을 배운다는 점에서, 이 강의는 배움이 실생활과 연결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 강의였습니다.

## 실습이 남긴 흔적, 지금도 이어지는 배움

한 학기 동안 수업에 깊이 몰입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AWS EC2 서버 연동 시 방화벽 설정과 보안 요소들을 더욱 신중하게 다루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수업을 지향하셨고, 네트워크를 통해 패킷이 어떻게 주고받는지 Wireshark로 실습하며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과정뿐 아니라, CLI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Ubuntu 리눅스 환경과 명

령어 사용법에 대한 온라인 강의 자료도 함께 제공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텍스트 기반 환경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실무를 상상하며 작업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 느낀 점 및 얻은 점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은 단순한 전공 강의를 넘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심어준 수업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암기 위주의 공부가 대부분이었지만, 이 수업은 배운 것을 눈앞에서 직접 확인하고 응용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 컸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리눅스 환경에서 개발하며 파일 권한 설정이나 네트워크 연결 점검에 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추천의 한마디

교수님의 열정 넘치는 가르침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배움에 뜻이 있는 학생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활용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학생이라면 이 수업을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1005118	컴퓨터네트워크	복수전공선택	3	4.5	96.7	A+
---------	---------	--------	---	-----	------	----



# 매 순간 진심을 다하는 호텔리어의 생동감 넘치는 강의

학과 항공관광외국어합부

이름 김남희

과목 호텔객실업무론

이효성 교수

## 1) 호텔객실업무론에 관하여

호텔객실업무론은 현대 호텔 객실 관리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며, 객실 부서의 역할과 구조, 객실 서비스 운영 및 가격 책정 전략을 다루는 과목이다. 또한 호텔의 지속 가능성, 고객 관계 관리의 중요성, 호텔 품질 표준 및 객실 유지 관리 등을 심도 있게 다룬다. 이 강의는 이론의 실제적 적용과 사례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현대 호텔 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상적인 호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 2) 호텔객실업무론을 추천하는 이유 및 강의 수강 이후 학습자로서의 긍정적 변화

필자는 항공관광외국어합부 3학년 학생으로, 이전까지 호텔 인턴십이나 관련 강의 경험 없이 4학년 과목인 호텔 객실업무론을 수강하였다. 사실 호텔 객실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 상태였기에, 처음에는 이 과목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호텔 업계에 대한 열정과 고민 끝에 수강 신청을 결심하였다.

수강 신청 전, 강의계획서에 기재된 교과목 개요와 학습 목표는 호텔 관련 경험이 전무한 필자에게는 한없이 막연하게만 느껴졌고, 이전 학기에 수강한 다른 전공 과목들처럼 단순히 NCS 교재를 암기하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 호텔객실업무론은 NCS 교재 위주의 강의가 아니라, 실제 호텔에서 근무한 경험이 풍부한 이효성 교수님의 실무 중심 강의였다.

교수님은 책에 있는 원론적인 내용보다는, 호텔 업계의 최신 트렌드와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방식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셨고, 학생들이 이론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며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셨다.

예를 들어, IT 산업의 발달로 인해 NCS 교재에 자세히 소개된 '호텔 비즈니스 센터'의 중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교재만 공부해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매우 의미 있는 인사이트였다. 또한, 객실 정비 중인 하우스맨의 Room Key issue 상황에서, 호텔 매뉴얼에 따라 Front Desk로 투숙객을 돌려보내는 것이 고객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필자는 단순히 이론만으로는 고객 중심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2학년 서비스경영론 시간에 배웠던 '호텔의 비저장성'을 바탕으로, 업셀링과 업그레이드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이는 호텔 수익성 향상에 있어 핵심적인 전략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중간고사 이후, 교수님께서 이클래스에 게시한 코멘트를 통해 필자는 Rooms 부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고객 불편과 컴플레인, 나아가 호텔 수익에까지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깨달았다. 만약 이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채로 호텔에 취업했다면, 실무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이 자명하다.

이처럼 호텔객실업무론은 필자에게 있어 단순한 수업을 넘어선, '행운' 그 자체였다. 시중에 출판된 교재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실전 중심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기에 이 강의는 그 어떤 호텔 과목으로도 대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상 깊었던 과제는 NIE(Newspaper in Education) 활동이었다. 이효성 교수님은 호텔 관련 최신 뉴스 기사를 탐색하고, 기사에 대한 의견을 작성한 뒤 이를 동료들과 공유하며 토론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 활동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학생들이 호텔 산업의 동적 변화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호텔 업계에 도입된 AI 기술'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필자는 AI 기술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리함은 물론, AI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비언어적 서비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호텔 서비스 품질에 있어 인간 중심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였다.

호텔객실업무론은 필자로 하여금, 매일같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며 다양한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호텔 업계에서 이상적인 인재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 소중한 디딤돌과 같은 강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졸업 이후 호텔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호텔객실업무론 수업을 강력히 추천한다. 이 강의는 단순한 전공 강의를 넘어, 호텔리어로서의 사고방식과 실무 감각을 동시에 길러주는 최고의 수업이라고 확신한다.

### 장학금 수혜 확인서

성 명: 김남희  
 학 과: 항공관광외국어학부  
 학 번: 2020100212  
 생 년 월 일: 2000-12-07

장학금 수혜 여부

학기	내용	금액(원)	비고
2025-1	나눔_2차	1,000,000	

- 이하 여백 -

위와 같이 장학금 수혜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5년 06월 21일

삼육대학교 장학위원장 

# 영화를 통해 배우는 생활 법률, 진짜 삶에 스며든 수업

학과 컴퓨터공학부

이름 우희찬

과목 영화 속 법률이야기

김형태 교수

나는 이번 학기 교양 선택 과목으로 김형태 교수님의 '영화 속 법률 이야기' 수업을 수강하였다. 이 강의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 상식을 영화나 드라마라는 매개체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수업의 교과목 개요에는 "학교생활과 사회생활 중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하여 영화 속 장면과 사건을 바탕으로 쉽게 이해하고, 법률적 사고력을 함양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었다. 실제 수업에서도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단순히 법률 조항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분석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수업은 매주 수요일 2교시부터 4교시까지 진행되었고, 매 주차마다 특정 영화 또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뤘다. 예를 들어, 1강에서는 영화 '파운더'를 통해 상표권 개념을, 2강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국가보안법, 영장주의, 고문 수사 등의 위헌적 요소를 다뤘다. '서울의 봄'에서는 민주 정치와 국민의 참정권, '부러진 화살'에서는 형사재판과 경찰·검찰의 수사 절차를, '보이스'에서는 보이스피싱과 사기죄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증여·상속·유언의 효력을 공부하였다. 특히 9강에서는 지식재산권과 AI 저작권, 특허법까지 다루어 나와 같이 같은 학기에 'AI 반도체 특허 출원 실습'을 듣고 있던 학생에게는 이론과 실무가 연결되는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이 수업이 특히 우수 강의로 추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체계적이고 학생 친화적인 운영 방식 때문이다. 교수님은 매주 수업 전에 깔끔하게 정리된 PPT 자료를 업로드해 주셨고, 별도의 필기 없이 밑줄과 표시만으로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할 정도로 내용이 명확했다. 수업 중간의 쉬는 시간은 항상 일정한 타이밍에 제공되어 흐름이 끊기지 않았으며, 적절한 크기의 강의실에서 조용하고 집중도 높은 환경 속에 수업이 진행되었다. 교수님은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셨고, 출석을 부르며 얼굴을 기억하려 하시거나 헤어스타일 변화를 알아봐 주시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중간고사 후에는 성적을 직접 학생들에게 알려 주시고, 이메일이나 대면 상담을 통한 소통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점은, 이 수업을 통해 나의 삶과 주변에 실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나는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였고, 그 결과 A+라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성적보다도 더 소중한 경험은,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사건에 적용해 볼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수업이 끝날 무렵, 내 친구가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조언을 구해왔다. 나는 고소 절차를 안내하고, 경찰 사건 접수 후 사건 정보 공개 청구 방법을 설명해 주었으며, 가해자로부터 합의 제안이 왔을 때는 적정 합의금 범위를 제안해 주었다. 또한 친구가 어떤 법적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 보며 민사 절차도 조언해 주었다. 그 일이 잘 해결되고 친구가 고마움을 전했을 때, 내가 이 수업을 통해 실제로 누군가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었음을 실감하고 큰 보람을 느꼈다.

수업에서 다룬 판례와 사례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었고, 교수님은 항상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질문하며 사고를 이끌어 주셨다. 나는 수업이 끝나갈 무렵이면, 어느덧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타인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교양 수업을 넘어 삶에 영향을 준 수업, 바로 이 수업이야말로 '우수 강의'라는 이름이 가장 어울린다.



# 단순한 전공필수 과목 그 이상, 경영정보론과 나의 변화

학과 경영합과

이름 김시원

과목 경영정보론

임명성 교수

처음 이 강의를 수강하게 된 것은 단순히 전공 필수 과목이기 때문이었다. 필수 과목을 찾아보면서 경영정보론이 어떤 과목인지, 이 과목이 경영학과 어떠한 연관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호기심이 있었다. 전공 필수 과목이다 보니 수강생들도 90명 정도가 함께 수강하는 대형 강의였고, 과목 담당 교수님은 임명성 교수님이셨다. 임명성 교수님의 수업은 열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여 기대가 되었다.

경영정보론의 수업 방식은 2025년도 1학기 기준으로 세미나실에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셨으며, 학생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셨다. 교수님께서 보여주는 교안 PPT를 기반으로 강의를 하셨고, 학생들이 교안만 보지 않도록 그저 단순히 교안을 읽어주는 방식이 아닌, 진행하시면서 교안에 없는 최신 사례나 추가 설명,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쉽게 풀어주시면서 말씀해주는 방식이었다. 사람마다 느끼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내가 느끼기에 이 수업의 특징은 실생활 경험과 이어지는 강의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강의들은 아무래도 이론 중심인 강의들이 많아, 직접 계산하고 써보고 이해해야 하는 부분에서 실생활의 영역과는 연결점이 희미하다고 느껴졌다. 이와 다르게 경영정보론은 실생활과의 연결점이 매우 명확하였다고 느껴졌다.

강의를 수강하는 2025년도 1학기 동안 세상에선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교수님께서 강의 내용과 연관된 실생활 사례들을 언급하시면서 설명해주시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 예를 들어, 학기 중 가장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하는 SKT의 대규모 해킹 사태와 이로 인한 유심 교체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교수님께서 단순히 뉴스 속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킹이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기업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보안 정책을 갖추고 있는지, 일반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다.

이처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학생들로 하여금 정보 기술이 그저 이론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우리 삶과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강의 중 교수님께서 학생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방식도 매우 인상 깊었던 경험이었다. 학생들이 그에 따른 답변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였다. 처음에 나는 이런 수업 방식이 교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실까 봐 부담스럽기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수님께서 질문을 거시지 않을까 하여 오히려 스스로 답을 생각해보기도 하고, 나의 의견을 정리하는 태도를 기르게 되었다.

교수님께서 지정을 하지 않고 의견을 다수에게 물어보실 때에도 나 혼자서 답변을 생각해보곤 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이 각자의 생각을 말하면, 교수님께서 그에 기반하여 추가 설명을 해주셨다. 정답이 없는, 그저 의견을 묻는 방식이셨기에 오히려 생각하기도 편하고, 마치 의견을 나누는 토론과 비슷하다고 느껴져 나의 사고력과 논리력이 향상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 글의 제목처럼 나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낀 순간이었다.

또한 이 강의에서는 발표 활동도 이 과목의 또 다른 특징이었다. 기본적으로는 발표를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서

로 자유롭게 조를 구성할 수 있었고, 혼자 듣는 학생들이 발표를 원하면 교수님께서 직접 조원을 매칭시켜 주시어 진행하도록 배려해주셨다. 발표를 독려해주는 것이 정말 좋았다고 느껴졌다. 학기 후반부에 발표가 진행되었는데, 발표 후에는 학생들이 발표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느껴졌다. 예상치 못한 창의적 질문들이 많아, 다양한 생각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었다. 나는 발표를 직접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발표를 듣고 질문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질문을 들으며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전공 필수 과목들이라고 하면 졸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듣는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수업도 비슷한 경험일 것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경영정보론은 무언가 달랐다. 나는 개인적으로 회계원리나 재무관리와 같은 계산 과목을 좋아한다. 그 이유는 계산 과정을 따라가면서 직접 써보고 계산하고 손으로 해보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책을 읽고, 강의 교안을 계속 보아 외우는 과목은 좀 기피하는 편이었다.

경영정보론도 처음에는 교안의 양이 너무 많아 부담이 있었고,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고 교안만 읽어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많았다. 다만 교수님께서 교안 내용을 구체적 예시와 함께 설명해주시는 것을 교안에 필기하면서 수업을 듣다 보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던 교안의 용어들도 이해가 되었고, 그 많던 교안의 내용의 부담도 줄어들었다. 나는 앞에서 말했듯 계산 과목을 좋아하여서 교안이나 책을 읽고 암기하는 방식의 이런 과목들은 사실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그저 시험 기간이 되면 강의 교안만 속독으로 몇 회독 돌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였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과목을 공부하는 의미보다는 그저 성적을 위해서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직접 교수님께서 언급해주는 실생활 사례들을 교안에 필기함으로써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단순히 성적을 위해 공부하는 습관을 벗어나 과목 자체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습관을 길렀다. 경영정보론을 통해 배운 나의 변화들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고 있었던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내가 변화한 것도 사실이고 또한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변화는 예를 들어, 나는 온라인 강의를 들어도 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교안 글 내용 중심의 강의는 그저 음소거로 해놓고, 나중에 필기된 내용만 따라 적거나 그냥 쳐두고 다른 일을 하곤 했었다. 하지만 이번 경영정보론 수업을 통해서 직접 듣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 예시들, 내용들을 자세히 적는 공부법을 배운 이후로 항상 음소거를 해두고 들었던 온라인 강의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다. 물론 온라인 강의 특성상 단짠을 하기 쉬워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4학년이 되면서 성적만을 위한 공부가 아닌 진정한 학습에 대해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경영정보론은 전공 필수 과목이기에 전공 선택 과목처럼 누구한테 추천하고 추천하지 않고 그럴 수 없이 경영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들어야 하는 과목이다. 그러다 보니 각자의 선호도가 있기에 강의에 대한 평가는 모두가 다를 수 있지만, 나는 이 과목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임명성 교수님의 강의에 대한 열정적인 수업 방식과 피드백, 실생활과 연결된 설명은 이 강의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중요 요소라고 생각한다.

경영정보론 말고도 경영통계학도 임명성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하시는데, 그 수업에서도 교수님께서 실생활 요소를 통해 이해를 도와주셨다. 다만 강의 내용은 계산 중심이기에 예시를 통한 이해는 제한되었긴 하였지만, 이러한 교수님의 수업 방식이 가장 잘 활용되는 수업이 경영정보론이라고 생각되었다. 전공 필수 과목이다 보니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들도 이 강의를 수강하여야 하는데, 이 수업은 경영학이라는 범주를 넘어서 전공에 무관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인 만큼 듣기에 수월하다고 생각한다.

범주가 넓기 때문에 학습 내용이 경영학과 관련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도 초반에는 경영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있었다. 하지만 정보 시스템의 구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과 같이 다양한 정보 기술이 경영 의사결정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한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배우면서 의문이 자연스럽게

게 해소되었다. 만약 이해가 되지 않아도 교수님께서 예시를 통해 도와주시는 것을 활용하여, 언급하지 않으신 내용도 직접 관련 뉴스와 사례를 찾아보는 등 25학년 1학기 동안 적극적으로 학습을 확장하였다.

또한 경영정보론이 그저 단순한 전공 필수 과목이 아닌, 그 이상을 넘어 미래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배우고 기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강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경영 환경에선 정보 시스템을 이해하고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은 필수적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전공 지식과 함께 단순한 전공 필수 과목을 넘어서, 실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과 경험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강의였다.

## 2025학년도 1학기 교육혁신원 공모전 모음집

---

발행일 | 2025. 8. 4.  
발행처 |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학습개발지원팀  
01795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다니엘관 508호  
TEL. 02-3399-3376  
E-mail. [ctl@syu.ac.kr](mailto:ctl@syu.ac.kr)  
편집 및 디자인 | 김유나(아트앤디자인 22)

본 책자에 실린 내용은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재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